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및 도시행정 전공

김 기 현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 이 종 수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및 도시행정 전공

김 기 현

김기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년 6월 일

목 차

국문요약	I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8
제1절 커뮤니티와 주민자치	8
제2절 커뮤니티의 개념과 구성	15
제3절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의 필요성	21
제4절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	29
제5절 연구의 분석틀	34
제3장 일본의 커뮤니티 형성 사례	36
제1절 일본사회에서 커뮤니티 형성 요구의 배경	36
제2절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町づくり)	40
제3절 世田谷區의 마을만들기 센타	43
제4절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	46

제4장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사례분석	48
제1절 커뮤니티 활동의 배경	48
1. 지역사회 개관	48
2. 커뮤니티 활동 개관	51
제2절 커뮤니티 활동 분석	56
1. 커뮤니티 활동의 전개과정	56
2. 커뮤니티 활동 추진주체	62
3. 커뮤니티 활동 참여동기	65
4. 커뮤니티 활동 분석	70
제3절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82
제4절 커뮤니티 의식의 형성	93
제5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2
Table of Contents	105

표 차 례

(표 2-1)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	23
(표 4-1)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의 관리규모	52
(표 4-2) 아파트 안전점검의 종류	58
(표 4-3) 자치부녀회 ‘두레’ 2002년 수입결산	71
(표 4-4) 커뮤니티 활동과 사영업체 문화프로그램, 어떻게 다른가?	80
(표 4-5) 2003년 1/4분기 하안 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91

그 립 차 례

(그림 2-1) 아른슈타인의 참여의 사다리	11
(그림 2-2) 시민주체도시의 형성과 커뮤니티	14
(그림 2-3) 커뮤니티와 그 구성요소	16
(그림 2-4) 커뮤니티 의식의 구조	20
(그림 2-5) 奥田의 커뮤니티 모델 유형	30
(그림 2-6) 연구의 분석틀	35
(그림 3-1) 새로운 지역관리 시스템의 이미지	39
(그림 3-2)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구조	41
(그림 3-3)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체계	42
(그림 3-4) 世田谷區 마을만들기 센터의 위상	44
(그림 4-1) Maslow와 Jarvis의 욕구위계 비교	65
(그림 4-2) 동기의 유형	66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해체의 위기 속에서 과거의 촌락공동체와는 구별되는 현대적 특성을 갖는 커뮤니티의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서울의 위성도시인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의 커뮤니티 활동사례를 연구하였다.

커뮤니티 형성의 질적 사례연구를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지침에 따라 1차로 자치부녀회 ‘두레’ 임원 5명을 대상으로, 2차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4명을 대상으로, 3차로 자치부녀회 ‘두레’ 회원 7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서의 분석과 3회의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서울의 위성도시인 경기도 광명시는 주변도시, 젊은 도시, 유동성이 높은 도시, 서민도시인 동시에 소득, 학력, 직업이 유사한 젊은 인구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또한 아파트는 수천 세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공동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자치부녀회등 다양한 주민조직이 활동하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기본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걸맞는 커뮤니티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커뮤니티 활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연구·교육·훈련을 통한 사회운동이라는 주민자치의 개념적 토대 위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관계 참여, 지역사회 활동참여 등 지역사회 참여요인이 커뮤니티 의식을 설명 및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의 연장

선에서 구체적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피폐한 도시생활에서도 커뮤니티를 추구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존재하고, 이러한 참여동기가 공동체 활동(Community Activity)과 이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커뮤니티 의식(Sense of Community)이 형성된다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 의식은 1) 정주의식 2) 공통의 유대(Common ties) 3) 가치의 공유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들에 따른 사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안 5단지의 경우 1997년부터 진행된 도로 확장공사와 도덕산 터널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아파트 커뮤니티 운동의 기초를 형성하였고, 1999년 자치부녀회 ‘두레’의 구성으로 본격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전개되었다. 즉, 주민운동을 거치면서 지도력의 개발과 주민들의 응집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의식적으로 지향하는 주민자치조직인 자치부녀회 ‘두레’의 구성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촉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반영되어 행정과는 일정하게 긴장관계에서 진행되는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고유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둘째,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 참가자들에게는 넓은 세상 도서관 활동, 좋은 이웃과의 만남에 대한 요구, 자원봉사활동 등 활동지향형(activity-oriented) 동기와 함께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 등 동네의 문제해결 추구하는 목적지향형(goal-oriented) 동기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이러한 동기는 개인적으로 형성된 경우

도 있지만 또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자극된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하안 5단지에서는 주부교육, 넓은 세상 도서관, 마을축제, 5단지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 참가자들은 자치부녀회를 통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환원되고 있고, 다른 아파트에서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하안 5단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데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넓은 세상 도서관’의 경우 신간서적 3,245권(2002년 말 기준)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 달에 약 2,500권이 대여되고 있다. 또 주부강좌의 수강생만이 아니라 강사를 단지 내 주민들로 구성하고 있었다. 보편적인 커뮤니티 활동에서 교육, 문화축제 등은 항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교육, 문화활동 등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이에 비해 하안 5단지에서는 ‘넓은 세상 도서관’이 일상적인 커뮤니티 활동의 공간이자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

넷째, 하안 5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치부녀회 ‘두레’의 회원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부녀회 ‘두레’ 사이에, 도로확장 공사라는 지역의 이슈를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간에 형성되고 있다.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신뢰형성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커뮤니티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커뮤니티 내부 집단의 갈등에는 커뮤니티가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여 갈등이 강화될 때는 커뮤니티가 약화되고, 그 갈등이 극복된 시점에는 커뮤니티가 강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단, 커뮤니티 외부 집단과의 갈등은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섯째, 커뮤니티 활동의 참가자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정주의식과 공통의 유대가 상당히 긴밀히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

활동의 참가자들은 주위에 많은 이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웃으로부터 도움받은 경험,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을 이웃과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도덕산 개발, 도로확장공사 등 환경보전과 관련된 이슈와 활동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환경보전’이라는 생태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핵심어: 커뮤니티, 커뮤니티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커뮤니티 의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압축적 고도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60~70년대 이루어진 이촌향도의 진행으로 도시와 농촌은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농촌의 경우 이농으로 인해 공동체 해체위기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된 반면 도시의 경우 주택, 교통, 교육, 상하수도, 대기, 범죄 등 전반적인 도시문제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다.

90년대 초반부터 우리사회에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사적 영역을 넘어서는 ‘공공성’과 ‘커뮤니티 형성’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데는 이러한 심각한 도시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경제성장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과 사회 행태로는 보다 나은 삶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전진과 함께 ‘커뮤니티’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분권’과 함께 요청되는 덕목은 ‘자치’이다. 하지만 1991년 부활된 한국의 지방자치에 의해 일정수준 분권화는 진전되고 있으나, 주민에 의한 참여와 자치는 성숙되지 않고 있다. 자치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이나 ‘지리’적 차원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주민’과 ‘사람’의 차원으로 연결시켜 이해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우

리의 과제는 지역공동체의 회복¹⁾으로 귀결된다(이종수, 2002: 5).

따라서 현재 심각한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한국사회 대도시의 가장 비중이 크고, 보편화되어 있는 주거형태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단위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97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25%(전국적으로는 0.7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난 1995년에는 48.1%(전국의 경우는 37.4%)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매년 건설되는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이 1974년에는 12.3%(단독주택은 81.3%)를 기록하였으나 1981년부터 단독주택 건설량을 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전체 주택건설량의 79.9%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은 9.2%)를 차지하게 된다.²⁾

하지만 이렇게 도시민 절대다수의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아파트 역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도시의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물량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치게 된 결과, 생활문화 공간의 절대적 결핍과 함께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많다는 소위

1) 이종수(2002)는 우리사회가 일제시대의 수탈과 6.25, 그리고 발전지상주의의 개발연대를 거치는 동안 전통적인 동네를 상실한 반면, 산업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적 공동체는 형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와해된 공동체를 21세기에 걸맞는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21세기 한국인의 삶의 질,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2) 대한주택공사, “아파트주거환경조사”, 「주택정보」 1997. 1.

‘아파트 문제’를 낳게 되었다.

반면에 아파트는 그 자체가 작은 자치단체와 같은 성격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 아파트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공동관리 업무에 필요한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방법과 주차 질서 등 주민의 안전과 질서확보를 위한 경비원이 있고, 자치부녀회·노인회 등 자발적인 주민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수천 세대가 밀집해서 사는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문제(환경, 주차,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안전 등)와 함께 다양한 갈등이 형성되고,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생활권 커뮤니티로서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 된다.

결국 현재 한국사회에서 ‘지역공동체’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는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이 중심적인 관심 축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으며 아파트에서의 커뮤니티 형성의 가능성과 성공여부가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극도로 파편화, 개인화되어있는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현대도시에서 어떠한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 찾기에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찾기를 위하여 공동체가 파괴된 한국사회의 표준적인 도시로 볼 수 있는 서울 인근의 베드타운인 경기도 광명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광명시의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커뮤니티 활동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생활권 단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질적 사례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폐한 도시생활에서 커뮤니티를 추구하고자 하는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존재하고, 이러한 참여동기가 커뮤니티 활동을 만들어내고, 커뮤니티 활동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통하여 커뮤니티 의식이 형성된다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 의식은 1) 정주의식 2) 공통의 유대(Common ties) 3) 가치의 공유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범위

현재 수도권은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2001년 말 46.6%에 달하여 거의 절반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소위 수도권 집중에 의하여 교통혼잡, 대기오염, 주택 값 폭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산업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서울의 위성도시로 기능하고 있는 여러 주변도시들은 지역 정체성과 정주의식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자치의 진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도시에서 커뮤니티 형성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서울의 위성도시인 경기도 광명시의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광명시는 산업시설이 부족하며, 생활기반 시설 역시 매우 취약하고 전화시설, 버스노선, 상하수도 등을 서울에 의존하여 주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또한 주거형태로는 아파트 62%, 연립주택 14.5%, 다세대주택 9.2%로 대부분 아파트를 중심으로 밀집해 살고 있다 (광명시, 1999).

광명시 하안동은 1980년대 이후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고, 지하철 1호선 가리봉역을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

근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많이 살고 지역으로 광명이 지나는 베드타운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의 경우 30~40대 인구가 전체인구의 35.7%로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고(광명시, 1999),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의 경우 1999년부터 주민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한 지역으로 여러 가지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프로그램, 기관, 사람, 과정 혹은 사회단위와 같이 한정된 현상에 대한 철저하고 총체적인 서술과 분석”이고, “연역적이고 실험적이기보다는, 과정과 이해와 해석에 초점을 두는 ‘귀납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Merriam,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위해 면접(interview)과 문서화된 자료분석,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면접유형에는 구조화된(structured) 면접, 비구조화된(unstructured)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접지침’만을 정해놓고, 표준화된 질문지나 질문의 순서는 미리 정해 놓지 않는다. 이 면접법을 선택한 이유는 구조화된 면접이나 비구조화된 면접과는 달리, 면접자와 피면접자간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3차례의 집단면접(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1차면접은 2002년 12월 5일 자치부녀회 '두레'의 임원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면접은 2003년 3월 20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4명을 대상으로, 3차 면접은 2003년 5월 13일 자치부녀회 '두레' 월례회 후에 1차면접에서 제외되었던 자치부녀회 임원과 회원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집단면접 후에 아파트 관리소장과 5월 21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문서의 분석은 사회조사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며, 많은 질적 연구자들에 의해서 유용하고 적절한 연구전략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운영일지,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주민자치기구인 자치부녀회 '두레'의 회의자료, 회의록 및 사업계획, 2000년 자치부녀회의 설문조사 결과, 도로확장공사로 분쟁이 생겼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부녀회가 광명시에 보낸 공문과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문서와 함께 자치부녀회의 내부 평가 자료 등 비공식적인 문서도 함께 참조하였다.

참여관찰은 사례연구에서 면접과 문서분석과 연합될 때, 그것은 조사되고 있는 현상의 총체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Merriam,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자치부녀회 '두레'의 월례회와 자치부녀회 '두레'의 소속 위원회인 '도서위원회' '교육위원회' 월례회의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커뮤니티와 주민자치

1. 주민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자율적 생활자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생활과는 무관하게 형식적, 제도적인 법 체계를 갖추는 데 불과했다. 물론 좋은 제도가 장기적으로 의식을 바꾸고 지방자치의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는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어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와 책임 의식의 성장에도 지장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적 측면으로서의 주민자치¹⁾가 성숙되어야 한다.

한편 주민자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주민자치를 단체자치와의 관계에서 보아 주민들이 지방자치에의 참여를 활성화

1) 주민자치는 주민과 자치의 복합어로서 주민은 오랜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자치란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민자치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태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이라는 개념과 자치라는 개념을 분리시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치를 위한 권리 의무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자치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연구, 교육 및 훈련을 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발전적 동태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조문부, 2001. 8: 32).

이와 같이 주민자치를 제도적 정태적 개념으로 보아 단체자치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주민자치란 지방자치의 실시여부, 지방자치의 범위, 지방자치의 형태 등에 관한 결정권과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권리를 주민에게 인정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말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개념을 주민과 자치를 분리시켜, 주민들이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연구·교육·훈련을 하여 주민자치제의 실질적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제의 법제화 이전 또는 이후 단계에서 추진되는 주민의 사회운동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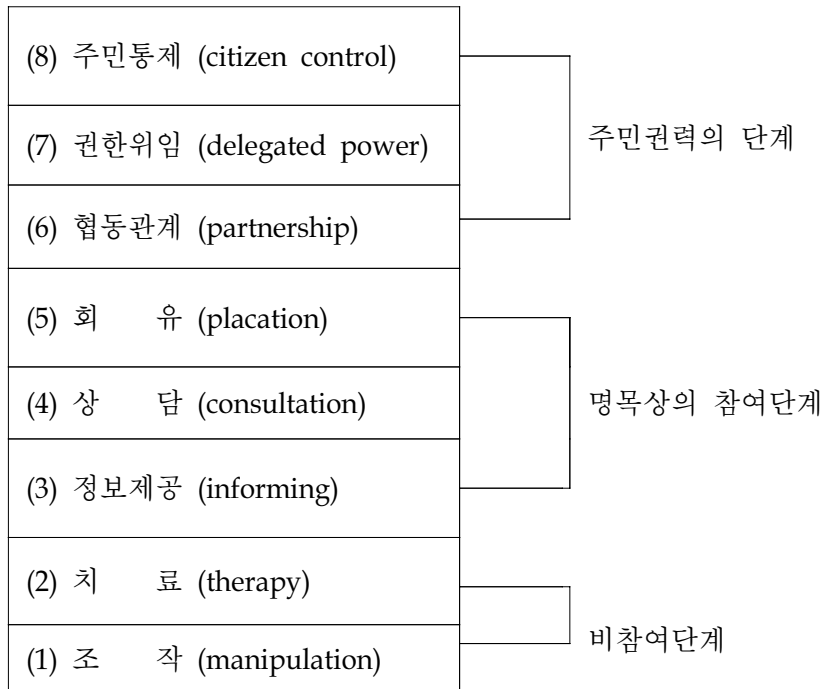
한편 주민자치와 밀접히 연관된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크게 보아 좁은 의미의 개념과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먼저 좁은 의미의 개념을 살펴보면, 시드니 버바(Sidney Verba)와 노먼 나이(Norman Nie)에 의한 개념이 대표적이라 하겠는데, 이들은 주민참여를 ‘일반시민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이해는 ① 기념 시가행진 등과 같이 정책결정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참여 ② 학교와 이익집단예의 참여와 같이 ‘정치적’이라 볼 수 없는 참여 ③ 정부를 ‘지지할 목적’의 참여, 그리고 ④ 합법성

이나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비제도적 참여 등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이다.

넓은 의미의 시민참여의 개념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치 및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시민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제도적인 것과 비제도적인 것, 반대와 지지, 의도적인 행위와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 등 공식적 정책결정자가 아닌 일반 시민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개념의 대표적인 인물은 패리(Parry)인데 그는 주민참여를 ‘의원과 관료의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시민의 행동’이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단계를 분석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른슈타인의 모형을 들 수 있다. 아른슈타인(Sherry R. Arnstein)은 주민참여의 형태를 미국 도시사회의 현실적 분석을 토대로 유명한 참여의 사다리(Eight Rungs on the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로 유형화시켰다. 이러한 구분은 여러 가지 사실의 단순화이지만 주민참여의 단계와 목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다.

(그림 2-1) 아른슈타인의 참여의 사다리



자료: 조창현,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1991, p. 270.

따라서 제도로서의 지방자치가 주민권력으로 일컬어지는 협동관계 (partnership),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통제 (citizen control)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조건과 역량이 성숙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의 커뮤니티 활동은 사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정책결정과 행정집행 과정에의 참여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라는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비제도적인 참여, 주도권의 소재에 따

라서는 주민주도형의 주민참여를 기본관점으로 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이러한 개념이해는 주민들이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연구·교육·훈련을 통하여 주민자치제의 실질적 기반구축이라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주민자치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2. 커뮤니티와 주민자치

세계적인 정치학자 푸트남(Robert. D. Putnam)은 어떤 제도가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성공하느냐 혹은 이기주의의 덫에 빠져 실패하느냐 여부는 사회적 맥락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즉,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진 제도라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자발적 협력이란 호혜성 규범과 시민참여 네트워크 같은 주민자치 역량이 충분히 축적한 공동체에서 제대로 달성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트남은 이탈리아 지역자치제 정착과정을 예로 들면서, 북부와 남부지역의 차이를 주민자치 역량의 축적 정도에 따라 비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호혜성 규범과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상호부조 모임, 협동조합, 노동조합, 스포츠클럽, 문학서클 등에 내재되어 있었던 북부 지역에서는 수평적인 시민유대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제도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비시민적 남부지역의 경우는 정치·사회적 참여가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탓에 부패와 상호의심, 무력감과 피해의식이 만연할 뿐 온전한 지역자치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오창균, 2002: 55).

이와 같이 제도로서의 지방자치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주민자치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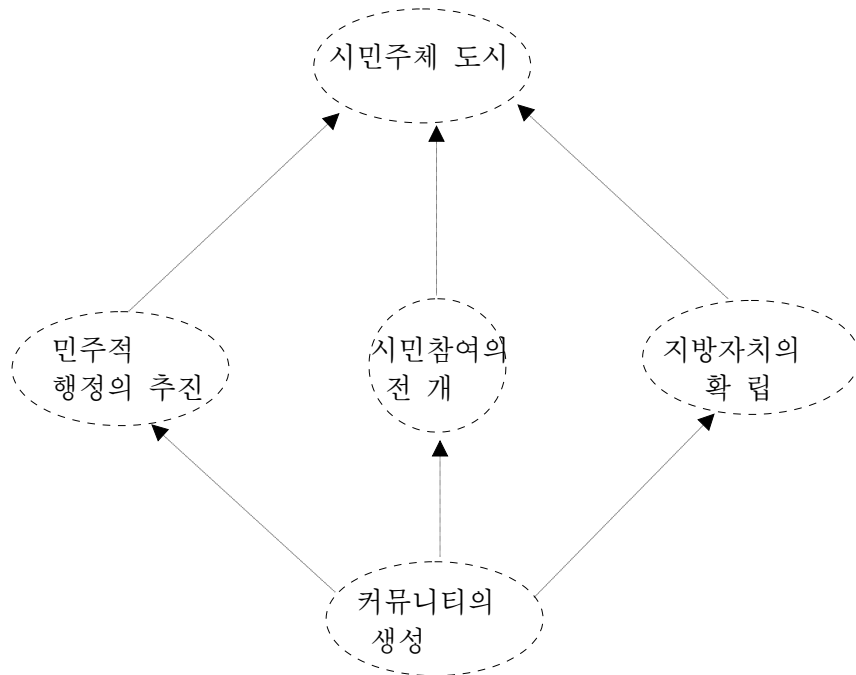
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며, 또한 주민자치는 시민적 규범, 시민참여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²⁾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들의 역량의 성숙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는 공과私の 중간에 있는 共同의 중요성과 주민자치의 기반으로 共同을 담당하는 새롭고 건강한 공동체로써 커뮤니티를 재발견하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대도시가 된다는 것은 커뮤니티를 행정조직 혹은 경제조직의 하부에 위치시키고, 커뮤니티를 약체화하거나 해체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림2-2)와 같이 주민자치가 만개한 시민이 중심된 도시는 그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생성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그 최종적인 결과로서 시민주체도시가 형성된다는 데 대다수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2) 자발적 결사체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적 자본은 경제 성장과 정치발전은 물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여, 사회의 정치·경제적 번영과 인간의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밑바탕이라는 것이다(주성수, 1999: 26).

(그림 2-2) 시민주체도시의 형성과 커뮤니티



자료: 강형기, “지역공동체의 복귀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자치행정」, 2001. 4, p. 19.

제2절 커뮤니티의 개념과 구성

1. 커뮤니티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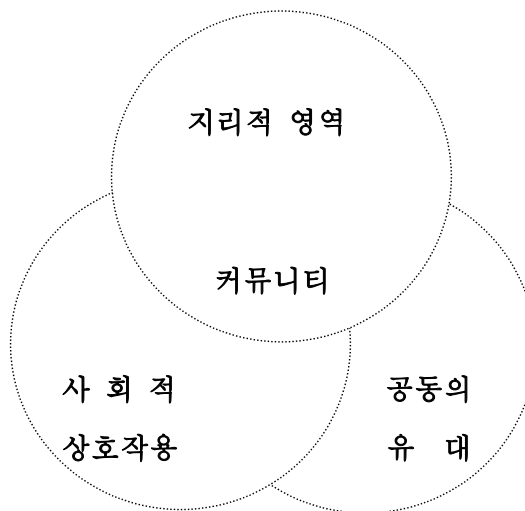
커뮤니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소수로 구성된 가족이나 동료집단에 서부터 지구상의 인구 절반으로 구성된 북반부와 남반부를 지칭하는 거 대한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개념까지를 포함하는 복합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지역단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뜻을 같 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데올로기나 공유특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 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는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힐러리(Hillery)는 1910년대부터 1950년대 초반 사이에 행해진 커뮤 니티 연구에서 커뮤니티는 대략 15개의 개념 범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힐러리는 커뮤니티를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으 로 보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주로 (1) 지리적 영역에 관한 특성 (2) 지리적 특성 외의 사회적 공유특성 (3) 사회체계에 관련된 요인 (4) 개 인의 특성 (5) 사회적 태도 (6) 사회적 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 다. 이들 6개의 범주들 중 첫 번째 지리적 영역과 두 번째의 지리적 특 성 이외의 사회적 공유특성은 (1) 공통의 목적과 규범 및 수단 소유 (2) 공통된 생활방식 (3) 자급자족 (4) 동류의식 등에 관련된 것이었다. 힐러 리는 이러한 복잡한 개념들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시 94 개의 연구들 중 69개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범주를 분류해본 결 과 그것들은 물리적 공간을 말해주는 (1)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사회관계를 나타내는 (2)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그리고 집단
의식을 나타내는 (3) 공동의 유대(common ties)로 분석하고 있다³⁾.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3) 커뮤니티와 그 구성요소



결국 커뮤니티는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라는 특
성의 교집합 속에 위치하여 있다는 것이다.

3) Hillery, Gerge A. Jr.,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995. 6, p. 118.

한편 현대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커뮤니티의 개념을 정의하는 경향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⁴⁾된다. 첫째, 커뮤니티를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개념화하는 경향(D. W. Mianar, S. Greer 등)으로, 이들은 종교 커뮤니티·학문 커뮤니티·시인 커뮤니티·군사 커뮤니티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를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정신적 현상과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향(R. M. MacIver, R. A. Nisbet, B. Brownwell 등)으로, 이들은 심성적 커뮤니티와 대중사회를 대조적인 것으로 보아, 커뮤니티에서는 ‘일체감’·심성적 통일·‘자발성’·‘전체성’이 특징인 반면, 커뮤니티가 아닌 대중사회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소외’·심성적 단절·‘비참여’·‘분절화’가 특징이 된다는 식으로 비교 개념을 설정한다.

셋째, 커뮤니티를 ‘지역’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경향(D. E. Poplin, M. B. Sussman 등)으로, 이들은 인간이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이며,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이 근린성(nearness)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이라고 보아, 커뮤니티를 무엇보다도 공간적 단위로서 특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본다.

반면 현대 일본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커뮤니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어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축으로 커뮤니티를 위치시키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경제성장 중심적이던 사회경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속에서 커뮤니티의 재생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제기하고

4) 신용하, 「공동체의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pp. 14-15.

있는 것이다.⁵⁾

宮崎辰雄은 커뮤니티란 “1) 시민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증폭하는 곳, 2) 사람들간에 인간성 회복을 꾀하는 곳, 3)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다루어 나감으로써 살기좋은 생활환경의 창조와 새로운 도시생활의 질서를 형성하는 곳, 4) 시민 기점(起點)의 발상에 의한 도시문제의 해결 및 지방자치의 기반확립”이라고 개념정의 한다(宮崎辰雄, 1950: 18).

또한 현대 일본에서는 커뮤니티를 “생활현장에서 시민으로서의 자주성과 책임을 자각한 개인 및 가정을 구성주체로 하고, 지역성과 각종의 공통목표를 가진 개방적이면서도 구성원 상호간에 신뢰감을 갖는 집단”⁶⁾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현대도시 사회의 복잡, 미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축으로 커뮤니티를 위치시키며 따라서 커뮤니티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가 형성된 생활현장에 입각한 집단이며, 오랜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와는 달리 주민의 창외와 요구를 실현하는 고유의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본다.

-
- 5) 커뮤니티에 대한 일본사회의 이러한 인식은 1995년 고베지진을 거치면서 극대화되었다. 고베지진의 대응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행정에 비하여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커뮤니티와 자원봉사활동이 일본사회에 큰 감명을 주었고, 커뮤니티가 인간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재확인시켰다. 그 결과 도시에서의 커뮤니티의 재생이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 6) “커뮤니티 생활현장에 있어서의 인간성 회복”, 日本 國民生活審議會, 1969. 9.

2. 커뮤니티 의식의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서 드러나는 커뮤니티 의식은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정의 만큼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는 영역의 한계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사회에서 커뮤니티 의식을 객관적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연구에서는 먼저 커뮤니티 의식과 그 구성요소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Mcmillan & Chavis은 커뮤니티 의식을 이웃간에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간의 필요한 것을 함께 함으로서 이를 수 있는 공유된 믿음의 감정으로 정의하여 소속감, 상호간의 영향, 가치의 공유, 정서적 연계 이 네 가지 원리로서 공동체의식이 형성된다고 보았다(Mcmillan & Chavis, 198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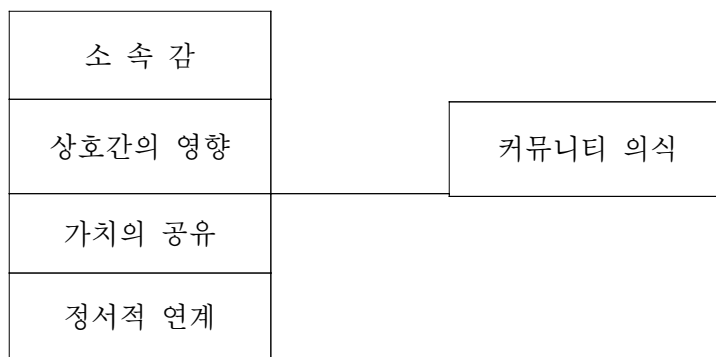
즉 커뮤니티 의식을 정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이웃이나 도시와 같은 장소에 관계되는 공동체에 대한 지역(territorial) 또는 지리적(geographic) 개념이고, 둘째는 인간관계의 특성에 관계되는 관계적인(relational) 개념이다. 다시 말해 커뮤니티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Glynn은 커뮤니티 의식을 커뮤니티 구조의 객관적인 평가, 커뮤니티 내의 지원적인 관계, 커뮤니티 주민들의 유사성 및 관계 유형, 커뮤니티에의 참여, 커뮤니티 환경의 특성, 커뮤니티 안전의 6개 차원으로 구성되는 항목으로 생각하였으며, Nasar & Julian은 이를 근린공동체에 한정된 내용만으로 축소하여 커뮤니티 내의 지원적인 관계, 커뮤

니티 주민들의 유사성 및 관계 유형, 커뮤니티에의 참여, 커뮤니티 안전의 4개 차원만으로 커뮤니티 의식을 구성하였다.⁷⁾

이러한 논의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Mcmillan & Chavis의 소속감, 상호간의 영향, 가치의 공유, 정서적 연계를 커뮤니티 의식 형성과정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보고,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4) 커뮤니티 의식의 구조



7) 김경준,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p. 22.

제3절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의 필요성

1.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란

현대사회는 극도로 전문화·분업화·파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가 어떤 형태로 존재 가능하고, 설혹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목적 달성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먼저 많은 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 해체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산업화, 중앙집중화된 관료정부의 성장, 지방과 중앙 구조 사이의 불균형이라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과 함께 위스(Wirth)는 '도시성으로서의 생활방식 Urbanism as a way of life'(1938)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점차 약화되어온 전통적 커뮤니티가 언젠가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라는 예측을 제기하였다. 그는 산업화된 도시사회의 구조가 도시민들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게 되었다고 보았다. 즉, 도시의 인구규모, 인구밀도, 인구의 이질성(population heterogeneity)이라는 세 구조적 요인들이 전일적인 개인의 인격을 특수 목적 지향으로 단편화시킨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촌락사회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없으며 개인의 내면세계를 상호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위스의 도시성 이론은 자본주의적 경쟁관계가 전통적인 커뮤니티 구조를 와해시키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Wirth, 강대기 역, 재인용,

2001: 92).

반면 위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허버트 겐스는 인간은 도시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가정, 직장, 이웃에서 항상 한정된 사람들과 만나며 살고, 결국 이들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커뮤니티의 구성요소이며 인구규모나 밀도, 그리고 인구의 이질성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커뮤니티 약화와 관계가 없다는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였다.

반면 현대사회에서의 ‘커뮤니티 해체’에 대하여 리치몬드(Richmond)는 (표 2-1)과 같이 ‘후기산업’ 사회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전화나 전신타자기, 텔레비전 및 고속항공기와 우주선 등에 의한 의사전달의 연결망을 통하여 특징적 형식들을 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지역적 기반이나 대면적 접촉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공식적 조직에의 참가를 수반하지도 않는다고 본다.

(표 2-1)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

	전통사회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
조직형식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	이익사회 (게젤샤프트)	연 결 망
상호작용방식	공동체들 Community	결사체들 Association	사회적 연결망들
원리적 생산양식	농 업 적	기 계 적	자 동적
계 층 화	의사봉건적	계 급	실력사회
의사전달수단	음 성	문 자	전 자
운송수단	말과 범선	농촌 - 도시	도 시 간
이주의 유형	강제적(배출)	자발적(흡인)	급격한 변화
이주자의 이주양식	동화/ 고립	다 원 적	활발한 유동성

자료: 콜린 벨 · 하워드 누비, 김경일 역, “공동체의 이론들”, 1985, p. 91.

리치몬드의 주장을 포함하여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비
관론은 대체로 1) 커뮤니티 무력론 - 커뮤니티가 있다고 해도 현대 도
시의 복잡한 양상에 대하여 도저히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만들만한
힘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2) 커뮤니티 불용론 - 커뮤니티가 없으면 없
는 대로 지낼 수 있다고 본다. 3) 커뮤니티 소멸론 - 커뮤니티의 기능과
사명이 끝났다고 본다. 4) 커뮤니티 방임론 - 커뮤니티는 자연발생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행정이 손을 대지않고 방임해 두어야 한다. 5) 커

뮤니티 역용(逆用)론 - 커뮤니티 조직은 본래의 목표와는 다른 것에 이용되는 등 역용된다는 것이다. 6) 커뮤니티 부정론 - 커뮤니티는 없는 것이 좋다거나 오히려 없애야 할 것이라고 본다. 7) 커뮤니티 유해론 - 커뮤니티는 도리어 현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는데 유해하다는 등 다양한 논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인간이 타인과 더불어 커뮤니티를 이루는 사회적 결합의 근저에는 퇴니스의 게마인샤프트의 본질인 본연의 의지와 같은 인간의 기본욕구가 자리잡고 있고, 이러한 욕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커뮤니티의 구조와는 달리 비교적 시공을 초월하여 지속하는 힘으로, 커뮤니티 형성의 기본동기로 작용하고 있다⁸⁾는 지적이 있고, 또한 커뮤니티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는 인간에게는 신체적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생리적 욕구 외에도 자신의 사회문화적 존재가치를 표현하려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커뮤니티 형성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로 보고 있다.

2 공유의 비극과 커뮤니티

현대사회는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서 운영된다. 하지만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의 원칙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특수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의 하나가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의 경우로 공유재는 소비는 경합적인 데 반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

8)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대우학술총서, 2001, p. 179.

서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⁹⁾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곧 사람들이 공유재를 사용하는 데 지불하는 비용이 '0'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재화로부터 얻게 되는 한계편익이 재화의 가격과 일치되는 점까지 소비행위를 계속하므로, 결국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사람들은 공유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에 있어서는 개인효용의 단기적인 극대화와 장기적인 극대화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공유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다.

물론 공유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공유재를 관리·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공유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효용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유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유지·관리 및 소비의 제한에 필요한 의사결정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공유의 비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공유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집단구성원 공통의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결국 정부의 실

9) 이러한 공유재의 예로서는 낚시터, 유전, 지하수, 목초지 등을 들 수 있다. 낚시터의 경우 사실 낚시터가 아닌 이상 낚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반면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더 낚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이 경우 배제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소비는 경합적인 것이다.

패로 귀결된다.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여전히 남고, 또한 정부의 활동은 민간부문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개입은 의도한 결과뿐만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정부개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정부개입이 있기 전의 상태에 비해서 자원배분 상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공유재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문제해결이 유일한 대안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3. 로컬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현재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분절화되고 복잡·다양화되어 가는 시대상황 속에서 국가사회의 운영의 틀을 전환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론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현재 거버넌스의 개념은 크게 협의와 광의로서 정의된다.

먼저 협의로 거버넌스를 정의하면,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사회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적 거버

넌스의 정의는 정부를 제외시킨다는 의미에서 Rhodes의 소위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의 형태에 가깝다.

반면에 Stoker 등은 광의로서 거버넌스를 규정하여 정부 중심의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국가(정부), 시민사회 및 시장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때는 기존의 계서제적 정부 그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권위에 기초한 통치로서의 정부기능을 부인하는 대신 사회의 주요행위자로서 시장의 민간기업과 그에 대칭하는 행위자로서 정부, 그리고 이들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시민과 그 대변자로서의 비정부조직(NGO) 간의 수평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동반자적 관계형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함께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 government)’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가사회의 중요 정책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시장(기업)-시민(NGO) 등 3자가 그 권한을 온전히 공유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정부나 조직 상층부 핵심계층이 중심이 되고 정책과정 일부에 시민이나 일선 하위행정인력의 부분적 참여를 인정하는 과거의 ‘시민참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거버넌스는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의 활동영역 범위 및 수준에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리저널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내셔널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사이버 거버넌스(cyber governance)로

구분된다.

이 중 로컬 거버넌스는 국가하위 차원에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협력체제와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로컬 거버넌스는 직접민주주의 체제에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적 연습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버넌스 중에도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된다(문병기, 2002. 1: 26).

이와 같이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국가적 발상에서 전환하여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이자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미래행정의 실현을 위한 새 패러다임이다. 대화와 담론의 민주적 과정을 통해 모두가 우리라는 관계(we-relation)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운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로컬 거버넌스이다. 그러나 로컬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적용여부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주체의 존재 여부 즉,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 여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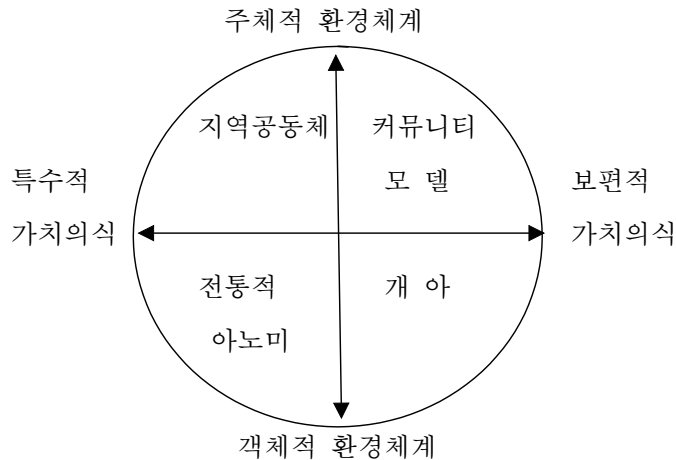
제4절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물질적 소비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공동생활은 빈곤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극단적인 풍요와 빈곤이 공존함에도 사회는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모습은 말 그대로 ‘공동체 해체의 위기’이다. 따라서 보다 인간답고 풍요로운 사회로의 발전은 커뮤니티 형성과 커뮤니티 의식의 확산에 있다는 인식과 이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高橋桓은 도시적인 질과 커뮤니티의 질을 구별하여 다루고, 특히 후자를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질로 보아, 커뮤니티의 질적 지향의 가치를 지역의 연대성과 행동의 주체성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민의 커뮤니티 의식은 지역의 연대성에 의해 공동의 연대성, 편익적 연대성, 지역적 연대성으로 구분되며 상대적으로 연대성이 없는 주민은 개인주의적 분해와 아노미적 분해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奥田은 커뮤니티 의식을 주민의 주거지에 대한 일반적 가치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여 커뮤니티의 체계에 있어서 행동의 체계로서 주체화⇔객체화의 축과 의식의 체계에 있어서의 보편화 ⇔ 특수화의 축을 설정하고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개아, 전통적 아노미의 모델을 (그림 2-4)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림 2-5) 奥田의 커뮤니티 모델 유형



자료: 김종재, “도시민의 정주·커뮤니티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3, p. 36.

Glynn은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이질성,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만족도, 지역성, 지역사회 참여 등을 지적하고 커뮤니티 의식의 측정도구로 60개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Glynn이 제기한 커뮤니티 의식의 측정도구는 상당한 자극과 논란이 되어 발전을 거듭했으며 국내에서도 1990년 이후 도시공학, 지역사회개발학에서 커뮤니티 의식의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정재희, 1993; 우룡, 1994; 박경구, 1995; 김경준, 1998)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학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연구자가 커뮤니티 형성의 주요 변인으로 1) 지역관련 특성 2) 인구학적 특성 3) 주거관련 변인 (거주기간, 주택소유 및 소유기간, 주택유형) 4) 지역사회 관련 태도(지역사회 인지, 지역사회 평가) 5) 지역사회 참여(주민관련 참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연구 결과는 도시의 규모가 작고,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Wilson & Baldassare, 1996), 연령이 높을수록(정재희, 1993), 주거기간이 길수록(Coudy, 1990) 커뮤니티 의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주택유형에 있어서는 단독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의 순으로(박경구, 1994) 커뮤니티 의식 형성이 용이하고 본다. 또한 지역주민 · 지역시설(공간) · 지역사회 문제 ·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Coudy, 1990), 더 나아가 주거자들이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지각만으로도, 곧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기회가 있다는 지각 자체만으로도 커뮤니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Wilson & Baldassare, 1996).

또한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마지막으로 지역활동 참여 정도가 커뮤니티 의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김종재, 1993).

특히 김경준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 주민관계 참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참여요인은 커뮤니티 의식을 설명 및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유도를 통하여 커뮤니티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간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들간의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한편 커뮤니티 연구 대상 중 도시지역의 근린 생활권, 그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연구는 정주공동체 형성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아파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지만 수 천 세대가 밀집한 공간의 특성상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커뮤니티 형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파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아파트의 관리 현황, 주거만족도, 주거선택요인 등과 관련한 조사가 많고,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서는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정재희(1993)와 박경구(1994)는 주거유형별 커뮤니티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고, 김정선·박순진(1993), 황한식(1997)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은난순·홍형옥(1996)은 생활관리의 개념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10) 김경준,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p.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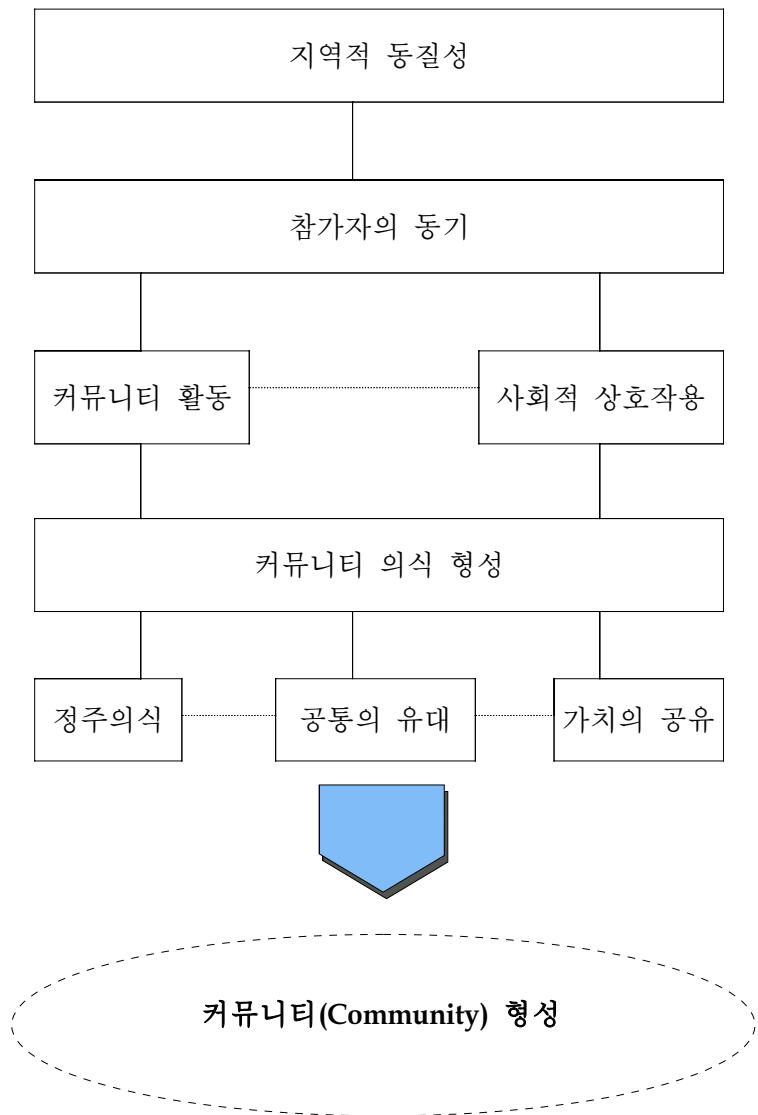
한편 민지선(2001)은 수원시 구운동 삼환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지역주민운동이 커뮤니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의 참여동기, 커뮤니티 활동의 국면과 과정, 커뮤니티 구성 집단간 또는 내외집단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제5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피폐한 도시생활에서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존재하고, 이러한 참여동기가 커뮤니티 활동 (Community Activity)과 이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커뮤니티 의식(Sense of Community)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 의식은 1) 정주의식 2) 공통의 유대(Common ties) 3) 가치의 공유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6)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에서 전개되는 커뮤니티 활동의 질적 사례분석을 위하여 먼저 커뮤니티 활동의 주·객관적 조건과 참여자의 참여동기를 살펴본 다음 커뮤니티 활동의 내용과 국면들을 검토하고, 커뮤니티 활동의 과정에서 형성된 제 사회집단 내·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밝히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야기된 커뮤니티 의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2-6)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일본의 커뮤니티 형성 사례

제1절 일본사회에서 커뮤니티 형성 요구의 배경

전후 일본은 경제적인 풍요를 지상목표로 삼았다. 패전국 일본을 이처럼 경제동물로 내몬 것은 패권국가인 미국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었다. 그 후 일본은 한국전쟁과 동서냉전이라는 시기적, 지리적 특성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단기간에 기적적인 경제부흥을 달성하였다. 결국 일본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고도경제 성장을 거쳐 확고한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의 이면에서 1970년대부터 일본사회에는 복지문제, 어린이에 의한 범죄나 학급붕괴 등의 교육문제,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역사적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1956년 일본은 고도성장 전기에 진입하고, 본격적인 산업화 공업화는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을 도시로 이동시켜 소위 ‘이촌향도’ 현상을 나타나게 한다. 또 1959년부터는 태평양연안에 대규모 근해공업지대 조성을 개시했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을 착공했다.

또 1962년에는 신규공업지대의 조성, 사회자본 5개년 계획 등 고도성장정책이 발표되었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동경올림픽준비를 했고, 이에 따른 주요 도시의 시설정비가 진행되었고, 동경(東京) 도시구조기반도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또 올림픽개최와 함께 주요 도로교통이 개

통되었고, 교통의 편리는 도시화가 농촌에 이입되고 농민들의 이농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규모 이농은 도시과밀현상을 가져와 주거, 교통, 소음, 쓰레기, 대기오염, 각종범죄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1966년 처음으로 각료회의의 경제심의회에서 ‘과밀(過密)과 과소(過少)의 사회문제’를 지적했고,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대안으로 균형과 안정성장의 개발방법을 지적하고 있다.

1966년에서부터 1970년까지는 일본에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배경이 되는 시기로서 1967년 경제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도시에 있어서 주택·하수도·도시공원 등 생활환경시설의 투자가 증가했다. 1968에는 고도성장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까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배경으로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일본열도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 속에서 1969년 지방자치법 2조 5항이 개정되는데 이는 일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변동 계기가 되었다. 즉 “市·町·村은 그 사무를 처리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역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구상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이다. 이 지자법 2조 5항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지역행정참여를 보장하고 1970년대 후반, 1980년대의 一村一品운동 등과 결합하여 지역특성화에 의한 지역개발방법이 진행되게 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산업’ 우선, ‘회사’ 우선, ‘학력’ 우선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양상시킨 일본의 경제·사회시스템을 다시 짜기 위하여는 지역·생활단위에서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현대도시의 복잡다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 기업, 전

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론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즉 산업화이래 도시가 가진 문제를 각 주체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도시를 특화시키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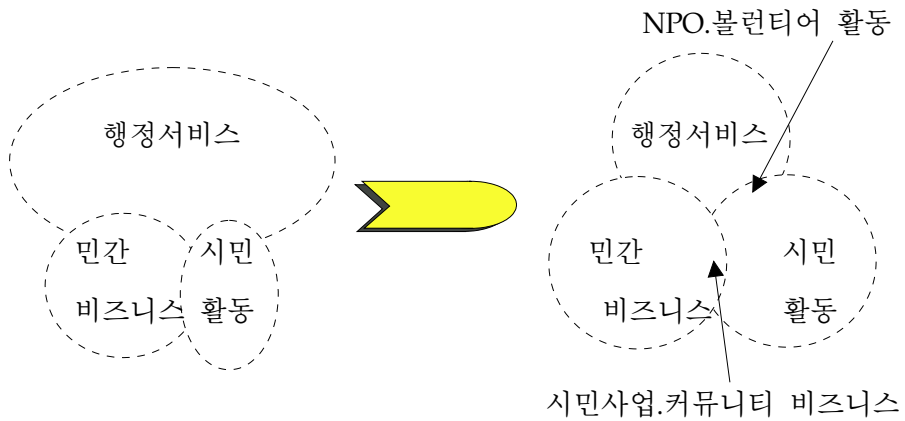
이와 함께 1995년 발생한 고베 대지진은 일본인의 의식변화를 촉진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5천명을 넘는 인명이 목숨을 잃은 지진 그 자체는 비참하였으나 지진을 계기로 또 그 부흥의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흐름을 볼 수 있었다.

먼저,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이나 기업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대신 커뮤니티 내부에서 함양되어 온 상호부조의 정신과 인간관계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에서 달려온 150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도 크게 활약하였다. 따라서 일본사회는 고베 대지진을 자원봉사의 원년으로 인식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집중되어 (그림 3-1)과 같은 새로운 지역 관리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림 3-1) 새로운 지역관리 시스템의 이미지

목표: 행정 '서비스 편중형'에서 '官民共創型'으로



< 집 권 형 >

큰 정부 (재정부담 大)

정형.획일적인 서비스

효율 우선

커뮤니티 파워 (小)

< 분 권 형 >

작은 정부 (재정부담 小)

다양한 서비스 (수요대응형)

생활자 우선

커뮤니티 파워 (大)

자료: 地方自治職員練修 (2001. 10), 자치행정 2001. 1에서 재인용

제2절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町づくり)

이러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마을만들기(町づくり)¹⁾이다.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1970년대 마을현안 등 지역에 있어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중반이후는 지역특성화와 상징화 작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 1990년대 이후는 도시지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즉, 어린이·노약자·장애자·외국인들이 밝고 건강하게 도시생활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과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및 국제간 교류 등을 통해 지역전체가 활력을 주고 이것이 주민생활에 회귀하는 고도의 상징화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대상은 (그림 3-2)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마을만들기의 중심요소는 지역의 풍토와 역사, 생활, 환경 등이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는 시민과 행정이다.

1) 마찌쓰쿠리(町づくり)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마찌(町)는 한국어로 도회지 또는 시와 군사이의 중간조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마찌(町)를 군이 표현한다면 마찌(町)는 우리나라의 읍(鎭)이나 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한다. 또 쓰꾸리(づくり)는 쓰꾸루(作る·造る)의 명사형으로서 지금까지 없었던 곳에 새로운 사물, 상태를 만들, 가꿈, 형성함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자에 따라서 마찌쓰쿠리(町づくり)를 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 또는 동네만들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마을만들기로 통일한다.

(그림 3-2)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구조

(마을가꾸기의 목표)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마을가꾸기의 대상요소) 복지성, 쾌적성, 종합성

(마을가꾸기의 효과)인재개발, 개성 발전과제개발, 활력삶터개발,

의식 조직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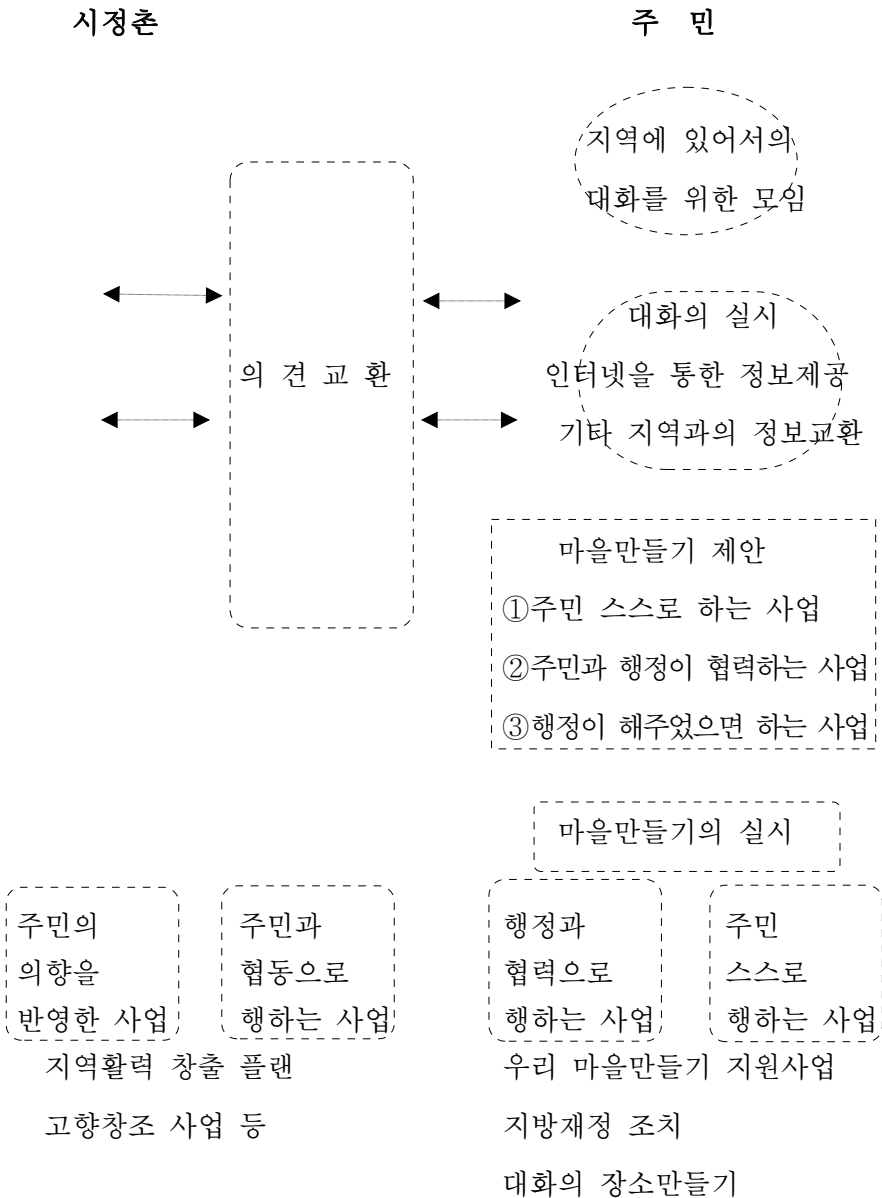
이미지	풍토 · 역사	조례제정
기능	환경 · 생활	특산품개발
의식개발	주민 · 시민단체	
	전문가 · 행정참여	

자료: 유상오,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재개발과 커뮤니티 형성”, 한국YMCA
전국연맹 마을만들기 보고서, 1999, p. 20.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1)인재만들기, 2)마을
발전과제개발, 3)삶터가꾸기, 4)마을조직만들기, 5)마을조례만들기, 6)마
을특산품만들기, 7)주민의식개발 등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별 분
류를 기능적으로 분류해 보면 1) 마을 개성 만들기, 2) 마을 활력 만들
기, 3)마을공동의식개발, 4)마을 이미지 만들기, 5)마을기능 만들기 등으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마을만들기의 목표인
지역의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 종합성 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림 3-3)와 같
은 지원체계를 통하여 민관 파트너십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림 3-3)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체계



자료: 권순복,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접근방안(II)”, 「자치행정」, 2001.
6, p. 76.

제3절 世田谷區의 마을만들기 센타

世田谷(세타가이)區는 동경도의 23개구 중 서남단에 위치한 구로 인구 78만 3천여명, 면적 58km²의 특별구이다. 본래 농촌지역이었으나 관동대지진 이후 급속하게 택지로 변해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동경내 23개구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구이다.

世田谷區에서는 1975년부터 구 독자적으로 지구특성을 살린 종합적, 계획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1978년에는 기본구상을, 1979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나아가 1982년에는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의 내용 중에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계획적으로 그것도 구민참가형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1987년에는 ‘世田谷區 신 기본계획’이 책정되면서 구민들의 자주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주거환경 만들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센타’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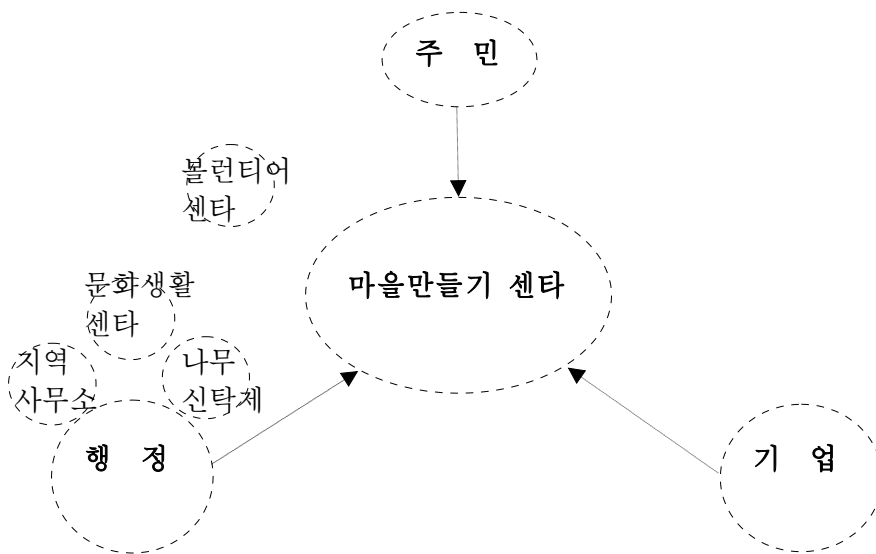
‘마을만들기 센타’는 주민, 기업, 행정의 중간지점에 위치해서(트라이앵글 원칙), 주민의 자주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世田谷區에서는 기존의 마을만들기 경험을 검토하면서 주민의 사회적 힘이 극히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의 사회적인 힘을 확립하는 것을 마을만들기의 최대과제로 설정하였다. 마을만들기는 본래, 주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주민, 행정, 기업의 3자가 각각 주체적으로 참가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마을만들기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트라이앵글이라고 말하면서도 행정과 기업의 양자가 갖는 힘이 강하고, 이들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되는 마을만들기만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반성이다.

따라서 주민의 추진력을 육성시켜 본래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기능이 가장 필요하고, 또한 추진주체 상호간의 협조 하에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호간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행정, 기업이라는 트라이앵글의 중간영역에 마을만들기 센타를 위치시키고 있다.

(그림 3-4) 世田谷區 마을만들기 센타의 위상



자료: 권순복, “世田谷區의 마을만들기 센타구상”, 『자치행정』, 2002. 6, p.

37.

이와 같이 구성된 마을만들기센터에는 2가지의 원칙과 6가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1) 2가지의 원칙

주민의 입장에서나 마을만들기에 있어서는 중립성을 유지한다.

2) 6가지 역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주민활동을 지원한다.

행정. 주민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주민이 기업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주민활동에 필요한 기금(재정) 마련을 지원한다.

이러한 원칙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센터는 아래의 9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 1)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수립의 지원
- 2) 주민참여 체제 만들기
- 3) 주민 등에 의한 마을만들기 조직설립의 지원
- 4) 트라이앵글 주체간의 의사소통, 조정, 창조적 해결
- 5) 마을만들기에 관계되는 사람과 정보의 네트워크 구성
- 6) 마을만들기 계획지원자의 발굴, 스카웃, 육성
- 7) 마을만들기 조사·연구
- 8) 마을만들기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9) 주민들의 주거개선활동 지원

제4절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일본의 커뮤니티 형성 사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은 고도성장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60년대 중반부터 ‘과밀(過密)과 과소(過少)’의 사회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현대사회의 복잡, 미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축으로 커뮤니티의 재생을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재생을 위하여 행정·기업·전문가·주민이 함께 아래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첫째,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이다. 1969년 지방자치법 2조 5항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지역행정 참여를 보장하고, 1995년에는 ‘지방분권 추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9년에는 ‘지방분권일괄법’을 채택하여 2000년 4월까지 475개의 법률에 대한 일괄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의 이면에는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고양하고, 커뮤니티를 재생하고자 하는 명확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둘째, 커뮤니티 이론의 재해석 및 체계화이다. 퇴니스의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로부터 이론화되기 시작한 서구의 공동체론을 뛰어넘어 公도 私도 아닌 共 영역의 발견, 민관 파트너십을 뛰어넘어 ‘民官共創’이라는 중요한 개념어의 사용,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역량을 커뮤니티 파워로 지칭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강조하는 등 체계적인 커뮤니티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업·전문가·주민의 공통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행정우위가 명백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활동과는 달리 世田谷區의 마을만들기 센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행정·기업의 트라이앵글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넷째, 커뮤니티를 과거의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와는 달리 “생활현장에서 시민으로서의 자주성과 책임을 자각한 개인 및 가정을 구성주체”로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커뮤니티 재생에서 ‘시민 기점(起點)’에 의한 발상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사회적 힘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마을만들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사회적 힘을 확립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커뮤니티 활동은 제도개선, 이론화작업, 지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가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사례분석

제1절 커뮤니티 활동의 배경

1. 지역사회 개관

광명시는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과 천왕동, 북동쪽으로 금천구 가산동, 시흥동, 남동쪽으로 안양시, 남서쪽으로 시흥시가 인접하고 있다. 광명시는 1970년대 말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집중 현상과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서울시 기반시설의 한계로 인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위성도시로서, 1981년 시로 승격되었고, 여느 위성도시처럼 베드타운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광명시의 인구는 1999년말 현재 34만 여명, 세대수는 약 11만 세대이다. 인구추이는 시 승격 이후 91년까지 7.96%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다가 1993년부터 그 증가율이 1%를 넘지 않는 등 둔화 추세이다. 지리적 특성으로는 전체면적이 38.872km², 이중 표고 70m이하가 76%인 29.273천m²이며, 경사 20%이하가 약 70%로 가용면적은 많으나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실가용 면적은 약 7.33km²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구 밀도는 km²당 8,946명으로 경기도 평균 805명보다 무려 11배나 더 조밀한 편이다. 또한 주거형태로는 아파트 62%, 연립주택 14.5%, 다세대주택 9.2%로 대부분 아파트를 중심으로 밀집해 살고 있다(광명시, 1999).

광명의 생활권은 크게 광명동 지역, 하안·철산 지역, 소하동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광명시의 도시형성은 맨 처음 광명동 지역에서 시작하여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등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점점 도시반경이 넓혀져 갔으나, 1993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더 이상 개발할 만한 공간이 없다. 우선, 광명동 지역은 광명시가 되기 이전 시흥군 서면 광명출장소의 중심이었던 지역으로 도시계획은 애초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곳은 주거형태상 아파트보다는 단독 혹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층이 더 많이 살고 있다. 하안·철산지역은 1980년대 이후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인데, 전체인구의 50%이상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등이 이곳에 있고, 지하철 1호선 가리봉역을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이다. 주된 주거형태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은 광명이 지니는 베드타운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하동 지역은 기아자동차와 이를 근거로 한 아파트 단지, 그리고 광명시 승격이전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의 마을로 형성된 곳으로 광명동 지역과 하안·철산동 지역과는 거리상 떨어진 위치에 있다.

광명시는 이와 같이 주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산업시설이 부족하여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생활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전화시설, 버스노선, 상하수도 등을 서울에 의존하고 있다.

광명시의 사회적 특성은 김종해(1995)의 논문에서 부천의 지역사회 특징으로 유형화한 것 중 공장도시를 제외한 유동성, 젊은 도시, 주변성, 서민도시라는 측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 주변성인데,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함께 유입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교육, 교통,

문화, 사회편의시설 등 생활환경시설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서울에서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변적 특성은 광명시민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 중 74%이상이 생활(교육문제 34%, 교통문제 27%, 편의시설부족이 13%)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광명시, 1999). 둘째는 유동성인데, 우선 타향으로서의 도시라는 특성이 보인다. 광명시민의 경우 출생지가 광명인 경우가 11%에 불과하고, 나머지 89%가 외부에서 유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명시민의 29.6%가 이주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와 30대 연령층의 경우는 각각 40.7%, 41.3%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경기도, 1999).

김중해(1995)의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특징은 사회적 결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반면, 생활을 매개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직장과 주거의 분리 현상도 일부 나타난다. 직장 또는 학교 등 주된 활동범위를 살펴보면 광명이 56%로 가장 많고, 서울이 35%, 안양, 부천등 기타 지역이 9%를 나타내고 있어, 관내를 제외한 활동범위가 서울이 주를 이루고 있어 1일 이동인구가 서울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광명시,1999).¹⁾

셋째는 젊은 도시라는 점인데 광명시의 경우 30~4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7%로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다(광명시,1999).

넷째는 서민도시로서의 특성인데, 1980년대 이후 아파트 신축과 함께 유입된 광명시민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소득, 학력, 직업과 직위, 주거상태 등에 있어서 특별히 높다거나 낮지 않은, 평균정도에 해

1) 김중해, “도시지역 지역사회행동의 주민참여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당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명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503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의 평균치인 1,583천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경기도 30개 시군에서 중간정도의 수준이다(경기도, 1999).

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잠재적 동기요인으로서 소득, 학력, 직업 등이 거의 유사한 젊은 인구들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인구밀도는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의 인적자원이 되어 새로운 관계망을 구하는 사람들간의 교류를 훨씬 쉽게 한다.

2. 커뮤니티 활동 개관

1)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개관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명시 하안 1동 702번지로 1988년 5월 21일 착공되어 1990년 3월 19일 준공하였으며, 1990년 5월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하안 5단지는 31.97평이 360세대, 24.97평이 720세대, 24.25평이 616세대, 19.24평이 480세대로 총 2,176세대 1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상가 1개, 일반상가 1개, 관리소와 노인정이 있고, 대지면적이 총 27,804평, 관리면적이 총 53,693.2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대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가 6개, 정구장이 3개, 농구장이 1개, 근린공원이 1개, 지하 저수조가 1개, 옥상물탱크가 18개 있다.

(표 4-1)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의 관리규모

구 분	난방방식	평 형	세 대 수	동 수
세 대	중앙난방	63.60m ² (19.24평)	480	8
		80.17m ² (24.25평)	616	7
		82.53m ² (24.97평)	720	8
		105.49m ² (31.97평)	360	3
계			2,176	18
종합상가	개별난방	1,340.62m ²		1
일반상가	개별난방	520.20m ²		1
관 리 소	중앙난방	1,874.00m ²		1
노 인 정	중앙난방	198.15m ²		1

자료: 하안 5단지 현황, 관리사무소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1990년 5월 25일부터 입주가 개시된 이후 1991년 4월 27일 구성되었으며, 아파트 관리는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소는 사무직 4명, 전기직 5명, 기관직 6명, 영선직 3명, 경비직 36명 총 5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안 5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용역계약으로는 위탁관리를 우리관리(주)와 체결하고 있으며, 청소는 (주)삼중용역, 소독은 (주)태영, 승강기 유지보수는 현대승강기, 유류는 한미석유와 용역계약이 이루어져 있다.

하안 5단지의 지역적 특성은 도덕산을 접하고 있고, 광명 실내체육

관이 5단지 초입에 위치하여 있으며, 하안북 초등학교와 하안북 중학교가 나란히 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산을 끼고 있는 자연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도덕산의 개발과 보존이 5단지 주민들에게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커뮤니티 활동 개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주민운동은 1990년 초에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의 상황은 87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회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시민권익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다.

또한 197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25%(전국적으로는 0.77%)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48.1%(전국의 경우는 37.4%)를 차지하게 되고, 매년 건설되는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이 1981년부터 단독주택 건설량을 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전체 주택건설량의 79.9%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은 9.2%)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주·객관적 조건은 주거공간으로서의 아파트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과 인식을 갖도록 하였으나 반면 대규모 물량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생활문화 공간의 절대적 결핍, 공기단축과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주민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전라도 광주외의 경우 YMCA,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주택연합

회와 함께 1992년 10월부터 ‘부실·하자문제 특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고, 광주시의회에 41개 아파트 436건에 달하는 청원을 실시한 결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광주지검 부정부패 사범특별수사부의 수사와 함께 겨우 준공이 2년밖에 안된 아파트가 부실로 판정되어 입주자들의 집단이주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후 광주지역의 선례에 따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주민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주로 부실공사, 하자보수, 관리비 절감과 관련된 문제들로 지속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일회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따라서 커뮤니티 활동이라기보다는 시민권익이라는 시각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시민스스로가 해결해 가는 아파트 주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운동의 일회적 성격을 극복하고 보다 일상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9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몇몇 지역에서 아파트에서의 커뮤니티 활동²⁾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부산의 금샘아파트, 수원의 삼환아파트가

2) 현재 한국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은 현대 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매개로 ‘정주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둘째,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횡행하고, 개인화·파편화되어 무기력감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삶터에서 보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기본적인 동기에서 출발한다.

셋째, 개인의 참여와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인의 압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자발적, 주체적인 운동이다.

넷째, 이념이나 슬로건보다는 구체적인 삶과 실천을 중시하는 운동이다.

상당한 성과를 낸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의 경우에도 1998년 시작된 아파트 주민운동은 광명시에서 하안 5단지 뒤편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단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유로 도로확장공사와 도덕산 관통도로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운동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진출하게 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아파트관리를 목표로 활동하였고, 그 성과로 아파트의 민주적인 운영이 상당히 자리잡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11월 15일 결성된 하안 5단지 자치부녀회 '두레'는 결성 초기부터 커뮤니티 활동과 커뮤니티 의식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자치부녀회 '두레'의 활동을 매개로 광명시 하안 5단지 주공아파트에서도 이기주의가 팽배한 도시공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다섯째, 과거의 촌락공동체에 대한 향수가 작용하나 현대성이 반영되어 참여자 개인의 개성과 특성, 생각과 판단이 존중되고 개인의 권리와 성장추구를 기본단위로 한 네트워크로서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여섯째,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은 참가와 탈퇴가 자유로운 열린 활동이다.

일곱째,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은 주민들이 삶터에서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장이며, 주민자치의 주요한 기본단위이다.

제2절 커뮤니티 활동 분석

1. 커뮤니티 활동의 전개과정

1) 소위 '아파트문제'

아파트의 관리형태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뉜다.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주민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10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에서 채택하며 총 아파트 단지의 약 40%가 이에 해당된다. 위탁관리는 아파트 전문관리회사에서 용역 관리하는 방식으로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운영에 책임을 지고 하는 방식으로 전국 아파트단지의 60%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매월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그 특성상 무엇보다도 몇 천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화·합리화가 기본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첫째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이다.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이 가능한 직접비(세대별 전기료와 수도료, 난방비)와 나머지 관리비인 간접관리비(순관리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담금이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관리비의 효율적인 운용이 우선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둘째로 각종 공사·용역 계약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1999년 아파트 비리관련 경찰청

특별수사에서 적발된 비리유형 중 각종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비리가 전체의 25% 정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로 아파트 안전문제이다. 공동주택 본래의 내구성능은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거의 결정되지만, 실제의 내용 연수는 입주 이후의 사용 조건과 유지관리의 적합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열화현상은 처음에는 매우 느리게 진행하지만 일정한 시점의 한계를 넘는 단계에서부터는 급속하게 진행하여 균열, 누수 등의 기능상실로 연결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안전하다고 판정되는 초기단계부터 안전점검과 유지보수·관리를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물 전체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4-2)와 같이 전문가들은 수천 세대가 밀집해 살아가는 아파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상적인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 4-2) 아파트 안전점검의 종류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정기진단	해빙기 진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비상 저수시설	연1회(2월 또는 3월)
	우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연1회(6월)
	월동기 진단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1회(9월 또는 10월)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매분기1회이상(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생진단	비상저수시설, 우물	연2회이상
수시진단		노후시설,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	매분기 1회이상

자료: 박광재, “아파트와 단지내 시설물 안전”, 한국YMCA 마을만들기 보고서, 2000, p. 107.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주민들의 자치능력에 따라서 소위 ‘아파트 문제’의 원활한 해결과 주거환경의 개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 속에서 아파트는 그 구조자체가 커뮤니티 활동과 공공적 문제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2) 하안 5단지 아파트 주민운동의 전개

1998년 7월 구성된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시점은 광명시가 하안 5단지 뒤편에 새로 신축되는 도덕파크 아파트단지(2,350세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하안 5단지 주공아파트의 도덕산과 면해 있는 도로의 확장공사와 도덕산 터널공사를 구체화시키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공사를 놓고 광명시는 신축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확장공사와 도덕산 관통도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분들은 신축아파트의 주된 출입구가 광명시 중심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외곽도로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두분 다 여성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씨, 총무 J씨를 포함한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의 핵심적인 인사들은 제5차 입주자대표회의가 1997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광명시의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던 분들로 제6차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자마자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공식기구가 광명시의 도로확장 공사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였다.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전개된 서명운동에서 하안 5단지 주민 2,176세대 중 83.5%가 도로공사에 반대했던 서명결과를 토대로 1998년 7월 11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로공사에 반대할 것을 공식적으로 의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하안 5단지 주민 전체의 이름으로 광명시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광명시장 면담과 수 차례의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피해가 가장 심한 501동, 506동, 507동, 508동, 511동 주민들뿐 아니라 전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문제제기의 강도를 둘러싸고 동대표 4명이 사퇴하는 등 내부적인 분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명시에서는 하안 5단지 주민들의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며 1998년 10월 24일 단지 내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 표출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로확장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주민대표들은 심한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아파트 운영의 투명화·합리화를 목표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통하여 하안 5단지가 광명시 인근 아파트 단지 중 관리비가 가장 적은 단지로 손꼽히도록 하고, 각종 공사·용역 계약시 공개경쟁 입찰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민주적 아파트 운영의 모범을 만들기도 하였다.

3) 커뮤니티 활동으로의 전환

광명시의 도로확장공사 강행으로 도로공사는 시행되었지만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 도로변에 가로공원을 설치하여 벚나무를 식재하는 문제 등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과 문제제기는 1999년에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11월 15일 하안 5단지 자치부녀회 ‘두레’의 결성으로 커뮤니티 활동으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계기가 형성된다. 전제한 바와 같이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는 일차적 과제로 제시한 도로확장 공사의 저지에는 실패하였지만, 아파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000부녀회의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000부녀회의 갈등이 심해지고, 부정부패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000부녀회에 위탁했던 알뜰장터 수익을 포함

한 아파트 기금운영의 권한을 회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당시 광명YMCA 생활협동운동에 참여하던 YMCA 주부 회원들에게 ‘자치부녀회’의 구성을 의뢰하면서 아파트 수익의 일부를 ‘자치부녀회’가 운영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한편 당시 하안 5단지에 살던 30여명의 광명YMCA 회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고 있었으며, 1998년 가을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축제’를 별도로 주최한 바 있었다.

따라서 자치부녀회 ‘두레’의 결성은 처음으로 하안 5단지에 명확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을 갖는 주민조직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광명Y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자치부녀회’ 결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K씨는 이렇게 말한다.

“5단지가 아이들에게는 고향이다. 이 마을에서 추억을 얻고 지역을 잘 가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으로 YMCA 활동을 해왔는데 아파트 안에서는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서 아쉬움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치부녀회가 제안되었을 때 호박이 덩굴채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K씨, 면접자료 1)

2. 커뮤니티 활동 추진주체

지역사회의 주민조직 단계는 1) 제1단계 - 인간관계 파악 2) 제2단계 - 지도자의 발견과 육성 3) 제 3단계 - 교육 4) 제 4단계 - 자율적 조직이라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조직은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움직인다.

첫째, 지역사회구성원이 그 사회를 위하여 일하려는 동기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불만도 생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조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만이 동기(motivation)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문제와 관련을 맺고 조직, 기획, 활동에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불만은 구조적인 것으로 집중되고 긍정적 가치를 조직 속에서 찾도록 한다는 것이다(신윤표, 1977: 418).

이러한 주민조직 원리를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적인 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부녀회 '두레'에 적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부녀회 '두레'는 모두 하안 5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는 상황에서 조직되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법적인 조건에 의하여 아파트 입주 직후에 구성되었지만 주민운동 또는 커뮤니티 활동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조직으로서의 역할은 도로확장공사와 도덕산 터널공사로 하안 5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대책위원회' 구성과 그 핵심인사들이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서부터이다. 자치부녀회 '두레' 역시 아파트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문제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000부녀회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구성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자치부녀회 '두레'의 경우 결성 초기부터 YMCA 활동을 통하여 커뮤니티 활동으로의 지향이

명확한 분들이 이러한 활동의 매개로 자치부녀회 ‘두레’를 바라보고, 구성했다는 목적지향이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과정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의 추진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부녀회 ‘두레’ 모두 사전의 운동과정을 통하여 신운표의 2단계 조직, 즉 지도자의 발견과 육성이 사전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직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하안 5단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치부녀회 ‘두레’,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상가 상조회, 통친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커뮤니티 활동의 추진주체로 유의미하게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자치부녀회 ‘두레’와 입주자대표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안 5단지의 다양한 조직 중 두 조직만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하안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4월 현재 전체 18개 동 중에서 동대표가 미선출되었거나, 동대표로 선출된 후 이사하여 결원된 곳 4개 동 외에 14명의 동대표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활동하고 있는 14명의 동대표 중에서 제8대부터 동대표를 연임한 동대표가 6명, 제9대 동대표로 신규로 선출된 동대표가 8명이다. 또한 선출과정에서 경선으로 선출된 동대표가 5명, 나머지는 9명은 단독출마로 해당 동 주민들이 찬반여부만 투표하여 선출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2명, 50대가 2명, 40대가 6명, 30대가 4명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7명, 여성이 7명으로 통상적으로 대다수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50대, 60대 남성으로 구성되는 것에 비하여 남녀비율이 동일하고, 30대~40대의 젊은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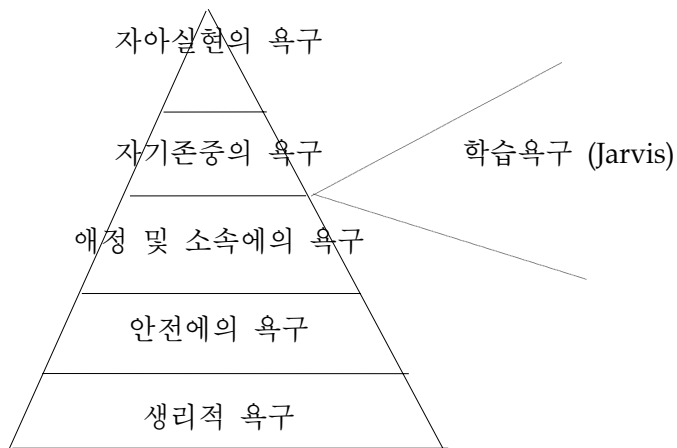
한편 자치부녀회 ‘두레’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 16명의 연령은 40대가 3명, 30대가 13명으로 자치부녀회 역시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하안 5단지 거주기간은 1명 외에는 5년 이상의 거주자로 상당기간을 5단지에 거주하면서 5단지에서 어린아이들을 키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회원 16명 중 자치부녀회 창립부터 활동한 회원이 14명, 활동기간이 2년 된 회원이 4명으로 신규회원의 유입은 약한 편이지만 상당기간 공통의 활동을 통하여 상호신뢰가 형성되고, 상당한 경험축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자치부녀회 ‘회원’ 외에 마을도서관에 해당되는 넓은 세상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13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3명이 자치부녀회 회원이고, 10명은 자치부녀회 회원은 아니나 일주에 한 두 차례 정기적으로 넓은 세상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커뮤니티 활동 참여동기

Maslow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인간의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설정하였다. 한편 Jarvis는 성인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Maslow의 욕구체계에 학습욕구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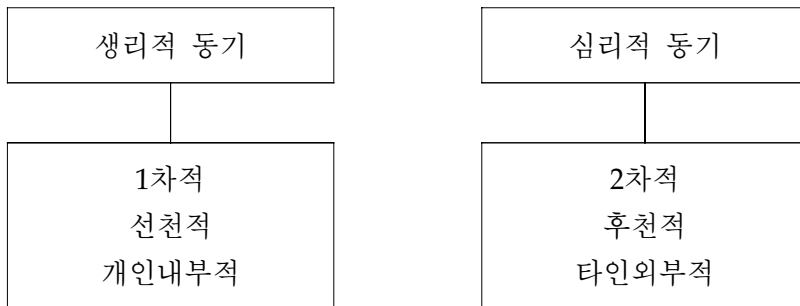
(그림 4-1) Maslow와 Jarvis의 욕구위계 비교



한편 신용일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동기의 유형은 생리적 동기와 심리적 동기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생리적 동기(physiological motivation)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가 생리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얻고자 목표지향적으로 행동하는 동기로, 모든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 물, 산소, 온도 등 생리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제공되어야 하

고, 따라서 생리적 동기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발견되지만 심리적 동기(psychological motivation)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의 동기라고 한다. 심리적 동기는 생리적 동기처럼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급물이 결핍되어서 생기는 동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학습되는 동기를 의미하고, 결국 자신이 속한 사회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림 4-2) 동기의 유형



자료: 신용일 외, 「심리학 개론」, 서울: 동문사, 1997, p. 89.

이러한 동기이론의 연장에서 Houle은 성인교육 참여자의 학습동기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를 명시적 목적지향형(goal-oriented), 활동지향형(activity-oriented), 학습지향형(learning-oriented)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권두승은 Houle의 유형과 Morstein & Smart의 참여동기 유형을 비교하면서 활동지향형 동기로 “첫째, 사회적 관계 - 개인적 교제와 우정에 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둘째, 도피와 자극 - 지루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정이나 일로부터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남은 생애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내기 위해, 셋째,

사회적 복지 -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준비하기 위해, 공동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라고 분류하고 있다(권두승, 2000: 42),

이와 같이 인간은 1차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후에는 애정 및 소속에의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발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와 함께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지향하는 ‘활동지향적 동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참여동기는 무엇일까? 심층면접 결과를 보면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참가집단 및 참가자의 상태에 따라서 커뮤니티 활동에의 참여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듯 하다.

자치부녀회 회원이면서 넓은 세상 도서관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Y씨는 이렇게 말한다.

“도서관 자원봉사로 인해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를 볼 때, 저녁시간에 TV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책을 읽고 있을 때, 큰 의미를 느끼고, 때로는 도서관 자원봉사가 힘들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의미를 준다.” (Y씨, 면접자료 3)

Y씨에게는 개인적 욕구와 공동체 활동의 의미가 겹쳐져 활동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또 자치부녀회에 초창기부터 참여한 회원 A씨는 이렇게 말한다

“자치부녀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타인이나 지역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 또 다른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A씨, 면접자료 3)

A씨에게는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활동지향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Y회원으로서 자치부녀회 활동에 적극적인 L-3씨는 이렇게 말한다.

“자치부녀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YMCA 활동을 하면서 동네에서 공식화된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회원들끼리 좋고 잘 지내는 것에서 점차 동네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YMCA에서 단지 내에서 마을축제 등 자체행사를 진행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새마을부녀회 등 기존조직의 힘이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았고, 동네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L-3씨, 면접자료 1)

또 넓은 세상 도서관 초대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L-4씨는 이렇게 말한다.

“동네 도서관을 만들자는 몇 분의 의견이 좋아서 자치부녀회에 참

여하게 되었다.” (L-4씨, 면접자료 3)

한편 학교교사이면서 제9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남성 J씨는 참여 동기를 이렇게 말한다.

“살고 있는 동의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몇 번씩 문제제기를 해도 그 때 뿐이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관리사무소에서도, 경비실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남성 J씨, 면접자료 2)

결국 이 분들에게는 참여동기 자체가 상당히 목적의식적인 것이었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커뮤니티 활동분석

카우프만은 ‘커뮤니티의 상호작용 개념을 위한 시론 Toward an Interactional Conception of Community’이라는 논문에서 커뮤니티는 장(Field, 그것도 상대적으로 좁은)이라는 점, 또한 두 번째로 커뮤니티는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가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한 즉, 제도들과 집합적 목표들의 양자를 포괄하는 삶의 양식에 관한 윤곽을 제시한다고 한다. 세 번째로 커뮤니티는 보다 근본적인 데서 비롯되며 집합적 행위에 관심을 지닌다는 것이다. 카우프만은 “커뮤니티 내부의 사람들은 공동적인 삶의 관심을 위하여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또 흔히 그러하기도 하다”고 한다. 따라서 카우프만의 커뮤니티에 관한 상호작용적 모델은 커뮤니티 참여자, 커뮤니티 집단들과 결사체들, 또한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행위의 국면들과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누가 누구와 함께 언제,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³⁾

따라서 커뮤니티 활동의 성격규명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의 국면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제한 바와 같이 하안 5단지의 커뮤니티 활동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자치부녀회 ‘두레’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안 5단지의 커뮤니티 활동은 자치부녀회 ‘두레’가 설계한 프로그램들이 일차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이차적으로는 관리사무소,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등의 사회 집단들과 협력과 연대 또는 갈등하면서 시행·수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콜린 벨·하워드 누비, 김경일 역, “공동체의 이론들”, 1985, p. 61.

현재 자치부녀회 ‘두레’는 운영비를 주로 아파트에서 일주에 한번 열리는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익과 아파트에 게재되는 광고수익, 아파트공유대지의 임대수익 등으로 마련하고 있다.

(표 4-3) 자치부녀회 ‘두레’ 2002년 수입결산

항 목	수 입
전년도 이월금	8,000,000원
공유대지 사용료	17,280,000원
게시광고 수입	1,500,000원
알뜰시장	11,440,000원
아카시아 축제	4,000,000원
계	42,220,000원

자료: 자치부녀회 두레, 2003년 2월 월례회 회의자료

이러한 수입구조는 대다수의 아파트 자치부녀회 또는 새마을부녀회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출로는 특별수선충당금 약 1,800만원 외에는 자치부녀회 활동 및 운영경비로 사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수입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자치부녀회 2기 회장이었던 L-2씨는 이렇게 말한다.

“자치부녀회 회장이 처음 되자마자 상인들에게 전화가 빗발쳤어요. 한번 만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집에 찾아오겠다는 사람, 1년간 알뜰시장 독점계약을 하게 해주면 0백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L-2씨, 면접자료 1)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물리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치부녀회의 수입과 지출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에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자치부녀회 ‘두레’는 결성되자마자 ‘알뜰시장’을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하였으며 알뜰시장이 개최될 때마다 부녀회 회원들이 품질과 가격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차기 계약에 반영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치부녀회 회원인 P씨는 이렇게 말한다.

“기존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던 부녀회 활동은 상당히 구태의연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자치부녀회의 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에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 (P씨, 면접자료 3)

이와 같이 수입·지출의 투명한 관리는 작은 일이지만 구성원의 신뢰와 자부심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현재 자치부녀회 ‘두레’가 전개하는 커뮤니티 활동은 크게 1) 교육프로그램 2) 마을축제 등 활동 프로그램 3) 넓은 세상 도서관 운영 4) 5단지 소식지 ‘산울림’ 발간 및 기타활동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은 어떻게 기획되는가? 자치부녀회 ‘두레’의 초대회장인 L씨는 이렇게 말한다.

“2001년부터 홍보위원회, 도서관위원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가 소그룹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각자 회원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모임별 특성에 따라 모이게 되었다. 현재 회의체계는 총회를 한 달에 한번 개최하고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된다. 도서관 위원회를 예로 들면 현재 장서가 3,000여권, 대부분 신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이 매달 함께 읽는 책들을 기증하고, 매달 30만원정도로 신간을 구입한다. 매월 2,000권 정도 대출되고 있다. 운영은 회원들이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밤늦게까지 모여 일일이 수 작업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L씨, 면접자료 1)

면접결과에 따르면 1999년 말에 자치부녀회 ‘두레’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해 동안은 회장과 총무를 비롯한 한 두명에게 활동이 집중되면서 커뮤니티 활동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전개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2001년에는 커뮤니티 활동의 영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별로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1) 교육프로그램

자치부녀회 '두레'에서는 2000년에 '아파트 나무학교'를 개최한다. 아파트 나무학교에서는 아파트 내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나무의 특징, 나무의 형태, 나무에 얹힌 이야기 등을 공부하고, 나무이름표 달기를 실시하였다. 초등학생과 주부들이 참여한 '아파트 나무학교'는 참가자들의 좋은 평가를 얻고 이후 초등학교 등교 길과 도덕산 약수터 길 나무이름표 달기와 도덕산 생태탐사 등의 활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중 5단지와 인접한 도덕산에 대한 '생태탐사' 프로그램은 매년 일년에 한두 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부녀회 '두레'의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2001년에는 주민들의 학습 욕구조사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주민들의 교육자로서의 능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2001년 하반기부터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욕구에 기초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2003년 4월 기준으로 하안 5단지에서는 '주부강좌'로 컴퓨터, 스포츠댄스, 수채화, 선물포장, 기타, 도예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 6개 강좌 중 도예 하나를 빼고, 5개 강좌는 5단지 주민들이 작은 비용을 받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안 5단지의 이러한 조건은 커뮤니티 활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만이 아니라 교육자까지도 지역주민들 속에서 발굴하여 학습자 상호간에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상호작용을 형성할 뿐 아니라 학습자와 교육자간에도 동일한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또한 2002년부터는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자녀와의 대화법’ APT (Active Parent Training) 교육 등 ‘아버지교실’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최하고, 어린이 역사탐방, 백제 문화기행 등 기행 프로그램을 주최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다양한 학습욕구를 해결하고 있다.

2) 마을축제 등 활동 프로그램

자치부녀회 ‘두레’에서는 절기별로 공동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0년부터 매년 2월 대보름에는 대보름 행사를 개최하여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줄다리기, 쥐불놀이, 토호놀이, 널뛰기 등의 놀이와 떡 등의 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한다.

몇 년째 5월 8일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하여 단지 내 노인들에게 ‘꽃달아드리기’와 노인정에 계신 노인들께 작은 선물 전달과 음식대접을 하고, 2002년 식목일에는 아파트단지 화단에 우리 들꽃 심기를 하였다.

하안 5단지의 일년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는 1999년부터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마을축제’이다. 아파트공동체운동의 추진주체인 자치부녀회 ‘두레’에서 주관하여 기획과 진행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최하여 총괄하는 ‘마을축제’를 운동의 추진주체들은 커뮤니티 형성의 주요한 매개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하안 5단지 ‘마을축제’는 수채화, 도자기, 서예, 아이들 작품, 글짓기, 독후감 등의 전시마당, 동화구연, 기타공연,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하는 만들기 마당 등 공연마당, 큰 줄넘기, 제기차기, 투호, 닭싸움, 씨름 등 놀이마당, 인절미, 절편, 꿀떡, 김치, 막걸리, 보쌈 등 먹을거리 마당, 풍물, 줄다리기, OX 퀴즈 등 대동놀이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

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파트 주민의 상당수가 함께 참여하여 어우러지고, 대동놀이로 끝맺음을 한다.

특히 2001년에는 ‘마을축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도자기 문패 만들기’를 실시하였는데 커뮤니티 형성의 매개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당시 자치부녀회 회장이었던 L-2씨는 이렇게 평가한다.

“아파트는 익명의 공간이다. 사실 꼼꼼히 생각하면 과거보다 가깝게 이웃들이 살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000동 000호라는 숫자로만 구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익명성을 없애는 한 방법으로 문패달기를 생각했다. 과거 집집마다 달려있던 문패는 얼마나 정겨운가? 그래서 도자기 문패를 가족이 함께 만들고, 아버지 이름만이 아니라 가족의 이름을 다 써놓고, 그래서 아파트 집집마다 문패가 달려있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조금은 친근하지 않을까?” (L-2씨, 면접자료 1)

또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하여 매년 12월에는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등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전달과 함께 어려운 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으며, 2000년에는 불우 청소년 돕기 헌옷 바자회를, 2002년에는 수재민돕기를 실시한 바 있다.

자치부녀회 ‘두레’에서는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입주민들의 생활을 잘 알고있는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아파트단지내의 독거노인 또는 노인들이 어린 손자나 손녀를 돌보는 세대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장애복지관에 매달 5만원, 소년가장인 A중학교 학생에게 매달 1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3) 넓은 세상 도서관

2000년부터 자치부녀회 '두레'에서는 관리사무소 위의 빈 공간에서 '마을도서관'을 시작하였다. '넓은 세상 도서관'이란 이름의 마을도서관은 2002년 한해동안 대출권수가 29,390권, 2002년 구입도서가 881권으로, 2002년 말 기준으로 3,245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다. 도서대여는 처음 대출증을 만드는 비용으로 500원을 받고, 도서대여는 무료이다. 다만 일주일 내에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200원의 벌금을 받고 있다.

현재 넓은 세상 도서관은 월요일 2명, 화요일 2명, 수요일 2명, 목요일 3명, 금요일 3명으로 총 13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주민들이 구입하기를 원하는 도서, 어린이 도서연구회 등의 추천도서, 운영위원회 자체 내 선정도서를 구입하는 일부터 도서구입 후 컴퓨터 인식라벨 붙이기와 컴퓨터 입력작업, 기타 도서대여 및 도서관리, 주민들에게 좋은 도서 기증받기 등 3,000여권의 도서를 관리하고, 30,000여회의 도서대여라는 작지 않은 일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일주에 1회 2시간씩 '넓은 세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동화책 읽어주기를 실시하고 있다.

자치부녀회 '두레'의 자체평가를 들어보면 '넓은 세상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중에서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활동이다.

초대 도서관운영위원장을 지낸 L-4씨는 이렇게 말한다.

“5단지 뿐 아니라 타 단지에서도 도서관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과 같지 않아 쉽지 않다.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넓은 세상 도서관은 지금 소장하고 있는 - 거의가 신간서적인 - 3,000권만으로도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 항상 도서관이 벅적거리고, 도서는 자꾸만 느는데 장소가 비좁아 대책마련이 시급할 정도이다.” (L-4씨, 면접자료 3)

부녀회원인 A씨는 이렇게 말한다.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도서를 대량으로 소장하고, 또 무료로 대여해주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구입하기 비싸고, 단기간만 이용하는 어린이 도서의 경우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 (A씨, 면접자료 3)

4) 기타활동

이외에도 자치부녀회 ‘두레’에서는 2000년부터 일년에 두 차례씩 아파트 신문인 오단지 소식 ‘산울림’을 발행하여 2003년 4월에 8호를 발행하였다. 오단지 소식 ‘산울림’은 하안 5단지와 관련된 지역현안 (8호의 경우 도덕산 정상 팔각정을 신축하는 문제), 기획기사 (8호의 경우 새학기 춘지문제), 자치부녀회 두레의 예산공개와 강좌안내, 주민들의 글과 기타 소식(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활동과 더불어 자치부녀회 ‘두레’에서는 2003년부터는 한 달에 1회 토요일 오후에 노인정에서 좋은 영화를 상영하는 ‘동네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하안 5단지가 도덕산에 면해 있는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인 반면 전철역까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단점을 감안하여 출·퇴근시간에 하안 5단지에서 철산역 또는 가리봉역을 함께 통행하는 ‘카풀’ 시행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재활용·재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벼룩시장’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5단지의 커뮤니티 활동 전반에 대하여 초창기부터 줄곧 활동하고 있는 자치부녀회원 Y씨는 이렇게 평가한다.

“타 단지의 부녀회와 달리 주민들에게 가깝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신문을 통해, 마을소식 부녀회 기금 내역 공개로 열린 마을을 만들고 있다. 또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취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저렴하고 단지 주민 누구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소질을 교육강좌를 통해 더 발전시킬 수 있어 무척 자부심을 느낀다.”(Y씨, 면접자료 3)

권순복(2001)은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활동으로서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백화점과 같은 사영업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그 내용이 비록 같다고 하더라도 아래 (표 4-4)와 같이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다.

(표 4-4) 커뮤니티 활동과 사영업체 문화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가?

구 분	같은 점	다른 점
개인문화센터 백화점 등과 커뮤니티 활동	여가선용, 개인 욕구충족 (건강, 취미, 오락 등)	영리추구 영업목적 시민의식개발, 공동체 형성

자료: 권순복,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접근방안(II)”, 「자치행정」, 2001.
6., p. 78.

또한 권순복은 커뮤니티 활동이 내포해야 할 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조하여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에서 체험한 팀웍 정신을 커뮤니티 의식 형성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셋째, 각종 강좌내용의 구성도 주민자치행정의 실현이나 건전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에 비중을 둔다.

넷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마을가꾸기 공동사업(자치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다섯째,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자원봉사 요원을 발굴·양성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운영비 가운데 참가자 회비의 폭을 점차 넓힌다.

위에서 검토한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은 권순복의 지적에 상당부분 부합될 뿐 아니라 헌신적인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고,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의 기본요소라 할 수 있는 주민교육, 도서관운영, 환경보호 등 활동, 축제, 신문발간 등 상당히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전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덕산 환경보호, 학교 앞 보행안전을 위하여 광명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주민입장을 만들고,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나가는 모습은 이미 상당히 성숙한 커뮤니티 활동으로서 평가될 수 있다.

제3절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커뮤니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각기 서로 다른 개인의 인성에 상응하는 개인의식을 가지는 동시에 그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집합의식을 또한 가지고 있고, 집합의식은 개인의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의 특수의식과는 전혀 개별의 것으로 오히려 집합의식은 개인의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실체로서 개인의식에 대하여 규제력을 가지며 각 세대와 더불어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는 세대들을 연결시켜준다(한상복, 1980: 155).

한편 뒤르켐은 우리가 집합의식 또는 공동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동일사회의 평균적인 주민들에게 공통된 감정과 신념의 총체가 형성하는 하나의 확고한 체계”라고 규정한다.

또한 매키버는 사회적 관계란 심리적 관계, 즉 심성들 minds의 관계라고 본다(매키버, 김경일 역, 1985: 155). 이와 같이 많은 연구결과는 커뮤니티 의식은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커뮤니티 의식은 인간관계의 형성, 발전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진행될수록 인간관계는 우호적, 협동적인 특성이나 속성들이 우세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커뮤니티 의식은 더욱 강하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진행될수록 무조건 커뮤니티 의식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때로는 갈등적, 경쟁적인 특성이나 속성들이 우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호적, 협동적인 특성이나 속성들이 우세하기도 하

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경쟁을 기본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커뮤니티 의식이 약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간관계의 형성, 발전과정에 따라 커뮤니티 의식은 변화하게 되는데, 인간관계가 소원한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수록 커뮤니티 의식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의식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주민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간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했느냐에 달려있다. 즉 커뮤니티 의식은 한 사회(집단)내의 인간관계가 갈등적, 경쟁적인 특성이나 속성들로 이루어진 소원한 관계가 우세한가, 아니면 우호적, 협동적인 특성이나 속성들로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가 우세한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커뮤니티 활동 과정에서 집단간, 개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형성, 발전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아파트는 법정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조직인 자치부녀회·새마을부녀회·노인회·상가 상호회, 관의 하부조직인 통장·반장, 일반 주민, 아파트 관리소 등 다양한 아파트 내부의 사회집단이 존재하고,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집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동사무소 등이 존재한다.

1) 자치부녀회 ‘두레’ 내적인 갈등 및 상호작용

1999년 11월 15일 결성된 자치부녀회 ‘두레’에 참가한 30여명의 주부들은 크게 광명YMCA에서 회원 활동을 하던 분들과 기존에 새마을부녀

회 활동을 하던 분들로 나뉜다. 따라서 초기에 다양한 갈등이 형성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런 일이다. 초기 자치부녀회 회장을 했던 L씨는 이렇게 회고한다.

“2000년 자치부녀회는 기존 새마을 부녀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 Y회원들과의 갈등이 심했다. 본인이 회장을 맡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활동했던 분이 부회장을 맡았는데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회원과 Y회원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대립했다. Y회원들 중 상당수가 중도에 대부분 그만두게 된 것도 이런 감정적 갈등에 원인이 있었다.” (L씨, 면접자료 1)

이러한 내부갈등은 2000년에 자치부녀회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원래 계획했던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일례로 2001년 1월 9일 총회에서는 “1)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표한다. 2) 동의합니다. 제정합니다. 반대합니다 등으로 안전에 대하여 의사 표시한다. 3) 끝까지 듣고 이야기한다. 4)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언쟁시 중재한다. 5) 핸드폰 끄고 들어오기 5) 시간엄수하고, 늦을 때에는 벌금 500원을 부과한다.”는 회의규칙을 제정함으로 감정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한다.

이러한 상호 노력에 힘입어 2001년에는 상호간의 이해 폭이 깊어지고, 일감을 나누는 일도 효율적으로 되어간 것 같다. 당시 YMCA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면서 자치부녀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K씨의 말에 따르면,

“2000년에는 뭔가 해야 한다는 의욕만 앞섰다. 회장, 총무가 일감을 다 떠맡았고 수시로 회의를 했지만 일감이 구분되지 않았다. 2001년에는 회원들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위원회 체계로 일감을 나누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비Y회원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보니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특히 2000년에 부회장을 맡았던 분이 총무로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로 간에 역할분담이 생겼다. 과거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되어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분이 총무로서 굵은 일을 잘 처리하고 잡무를 잘 하고 있어 서로간의 역할이 잘 배분된 것 같다.” (K씨, 면접자료 1)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는 자치부녀회가 커뮤니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 것 같다. 2000년 자치부녀회의 내분에 실망하여 활동을 그만 두었다가 2001년에 다시 활동에 합류한 L-3씨는 이렇게 말한다.

“2001년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때는 회원들도 상당히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2000년도에는 자치부녀회의 구체적인 방침이나 어떻게 하자는 계획이 없이 상호간의 갈등으로 심리적으로 참 어려웠다. 하지만 2001년도에 들어오면서 위원회가 소그룹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각자 회원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모임별 특성에 따라 모이면서 기존의 갈등관계도 많이 해결되었다. 현재의 회의체계는 총회를 한 달에 한번 개최하고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된다. 이제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고 갈등도 많이 해소되었다.” (L-3씨, 면접자료 1)

이러한 갈등과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자치부녀회 회원 상호간의 신뢰

와 상호이해는 상당히 깊어진 것 같다. 그 결과가 자치부녀회 초창기 회원 중 14명이 4년여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2002년 도로확장 공사를 둘러싼 갈등과 상호작용

2002년 하안 5단지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다시 한번 도로확장 공사를 놓고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1997년부터 광명시와 하안 5단지 주민들간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하안 5단지 뒤편에 새로 신축되는 도덕파크 아파트단지(2,350세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하안 5단지 주공아파트의 도덕산과 면해 있는 도로의 확장공사와 도덕산 터널공사의 문제였고, 1998년부터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도로확장공사 반대운동이 조직되었다.

하지만 2002년 3월에는 광명시에서 하안 5단지 앞의 편도 1차선을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하면서 5미터의 넓은 인도를 2.5미터~1.7미터로 줄이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광명시의 이러한 공사강행에 대하여 제8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하안 5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도가 넓어지면 교통이 편해지고, 야간 주차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과 보행권의 핵심인 인도를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이 문제된다고 반대하는 쪽으로 5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게 된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미온적 태도에 실망한 자치부녀회 ‘두레’와 인도 훼손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함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주민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 후 ‘주민 대책위’의 지속적인 항의 시위와 시장면담을 통해서 광명시 측에서는 “하안 5단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될 때까지 당분간 공사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나 ‘주민대책

위'와 '자치부녀회'의 활동에 대하여 하안 5단지의 공식적인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조직인 '통친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하안 5단지 주민 내부의 갈등이 심해진다. 여기에 더하여 1998년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끌며 도로확장공사와 도덕산 관통공사에 반대하였던 핵심인사들도 도로확장공사에 찬성하는 편에 서면서 주민 내부의 갈등이 무척 복잡한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4월 1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하여 찬성하는 주민대표, 반대하는 주민대표, 통친회, 노인회, 자치부녀회, 새마을부녀회의 간담회가 실시되고, 이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한다"는 합의를 하게 된다.

그 후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5단지 전체 2,176세대 중 61%인 1,324세대가 설문에 응답하여 그 중 59%인 782세대가 4차선으로의 도로확장공사에 찬성하고, 34%인 453세대가 도로확장으로 인한 인도훼손에 반대하였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설문조사 문구와 방식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부의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 내부의 심한 갈등 이후 '주민대책위'의 핵심인사들이 2002년 6월 새로 구성된 제9차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면서 자치부녀회 '두레'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은 새로운 협력관계로 다시 변화하게 된다.

도로 확장공사라는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하안 5단지의 다양한 주민 집단 간에 이와 같이 복잡하게 형성된 상호작용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여기에 대해 자치부녀회 ‘두레’의 초대 회장이었던 L씨는 이렇게 말한다.

“통장 친목회인 통친회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모임을 한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 받는다. 통친회 산하에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주로 행정과의 관계에 개입한다. 자치부녀회는 5단지 밖의 시, 동의 일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통제 역시 받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평소에 행정기관에서 자치부녀회를 깔그럽게 여기다가 자치부녀회가 광명시의 행정에 대하여 반대를 표하니깐 통친회와 새마을 부녀회가 모두 나서서 도로 확장공사에 찬성하도록 조직했다.” (L씨, 면접자료 1)

‘주민대책위’를 이끌었던 남성 K씨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동네 일에는 무관심했다. 하지만 인도가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들과 편의성을 주로 생각하는 주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것은 5단지 주민들의 의식이 건강하다는 표시라고 생각한다. 비록 인도훼손은 못 막았지만 이 일이 동 대표 선거에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남성 K씨, 면접자료 2)

한편,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를 역임하며 1998년 도로확장공사에 반대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이번 공사에는 찬성했던 J씨는 이렇게 말한다.

“5단지의 주차문제가 워낙 심각했고, 편도 1차선으로는 버스 소통

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확장공사에 찬성했다. 자치부녀회와 젊은 주민들이 도로확장공사에 반대했는데 의견은 달라도 젊은 사람들이 동네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 보였고, 1998년 도로확장공사와 도덕산 관통공사에 반대하면서 향의집회 등을 할 때 이런 젊은 분들이 참여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J씨, 면접자료 2)

도로 확장공사를 계기로 광명시와 하안 5단지 주민, 보다 복잡하게는 하안 5단지 주민 내부의 갈등이 형성되었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토론과 설문조사를 거치고, 도로 확장공사를 반대했던 측에서 과정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임으로 찬반으로 대립했던 주민들 간의 갈등은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된 것이다.

3) 하안 5단지 외부조직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하안 5단지의 외부에서 하안 5단지의 커뮤니티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은 광명시, 광명시의회, 하안 1동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인 광명YMCA 등이다. 하지만 광명YMCA를 빼놓고,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과 이들 외부단체들과의 연관은 매우 약하다.

유기농산물의 나눔과 소모임 활동을 결합하고 있는 광명YMCA 생활협동운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하안 5단지에서 살고있는 30여명의 주부 회원들은 자치부녀회 '두레'와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와의 관계는 주로 도덕산 개발, 도로확장공사 등 환경문제를 둘러싼 상호갈등으로만 표출되고 있고,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하안 5단지에서 가까이 위치한 하안 1동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검토하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과제가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1/4분기 하안 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은 (표 4-5)와 같다.

(표 4-5) 2003년 1/4분기 하안 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시설별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참여인원
생활문화 공 간	경기민요	1월 1일~3월 31일	매주 화요일 (10:00~12:00)	20명
	댄스스포츠	1월 1일~3월 31일	매주 월요일 (15:30~17:30)	16명
	꽃꽂이	1월 1일~3월 31일	매주 수요일 (15:30~17:30)	10명
	광명농악	1월 1일~3월 31일	매주 화요일 (14:00~16:00)	17명
	노래교실	1월 1일~3월 31일	매주 금요일 (10:00~12:00)	16명
인터넷 교 실	인터넷활용 기초반	1월 1일~3월 31일	매주 월·수 (10:00~12:00)	8명
	한글 97 문서작성	1월 1일~3월 31일	매주 화·목 (10:00~12:00)	8명

자료: 하안 1동 주민자치센터

주로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황은 주민자치 센터의 본질적 역할을 무색케 한다. 또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특정한 취미강좌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강좌를 통해서 새로운 커뮤니티 관계를 형성시키고, 클럽과 같은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나 현재 하안 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편 하안 1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위원을 살펴보면, 광명시 의원이 고문을 맡고 있고, 지역상공인 7명, 어린이집 원장 2명, 학교교사 1명, 주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 위원 중 하안 5

단지 거주자가 4명이지만 이들은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의 주체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 자치부녀회 ‘두레’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이다. 결국 주민자치센타에 부여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와는 달리 기존의 관변조직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2대 자치부녀회 회장을 역임했던 L-2씨는 이렇게 말한다.

“1999년 주민자치센타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당시의 자치부녀회 회장과 함께 동장과 사무장을 만나서 자치부녀회 ‘두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자치부녀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후에 확인하니 이미 구성된 상태라 자리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L-2씨, 면접자료 1)

물론 하안 5단지의 커뮤니티 활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타는 하안 1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하안 1동 주민의 절대다수가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타의 목적 자체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이라고 할 때, 주민 주도적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과거와 같은 거부감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4절 커뮤니티 의식의 형성

Mcmillan & Chavis는 전체적인 커뮤니티 의식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커뮤니티 의식의 구성요소로 구성원 감정(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정서적 연계(emotional connection)의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Mcmillan & Chavis, 1986: 9-14).

여기에서 구성원 감정은 소속해 있다는 느낌이나 개별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경계(boundaries), 정서적 안정(emotional safety), 소속감 및 동일시 감정(a sense of belonging and identification), 개인적 투자(personal investment), 공통적 상징체계(a common symbol system)라는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들은 함께 작용하여 커뮤니티 내외의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한다.

상호영향의식(influence)은 중요하다는 느낌, 즉 구성원이 집단에 중요하다는 느낌과 집단이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욕구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은 강화(reinforcement)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성원들의 욕구가 그 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받게 되는 자원을 통하여 충족되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연계(emotional connection)는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는 헌신이라고 한다. 공유된 정서적 관계는 역사의 공유에 기초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것을 공유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에 동일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공유하고 있는 사건이나 그 사건의

특정 속성 내에서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커뮤니티를 강화하거나 억제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정주의식은 지역 정체성(Identity)과도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정체성은 이론상으로 자기의 단일감, 연속감, 불변감, 독자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대상이나 일정한 집단 및 그 성원과의 사이에서 인정된 역할의 달성, 공동 가치관의 공유를 매개로 얻어지는 연대감, 안정감에 기초를 둔 자존감정 및 긍정적인 자기상(self-image)를 의미한다(박아청, 1984: 11).

또한 ‘지역 정체성’은 “한 지역의 주민으로서 소속감과 일체감이며, 그 지역의 주민이라는 집단성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과 집단경계가 지속하는 것”이다(김항원, 1990: 18).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지리적인 경계,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그렇다면 하안 5단지의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주의식, 공통의 유대 등 커뮤니티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자치부녀회 회원 Y씨는 이렇게 말한다.

“5단지가 고향이라고 느낀 적은 없지만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생활에서 이웃간의 정을 느끼기 힘들데 우리 마을은 시골동네처럼 많은 이웃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런 이웃을 가지게 된 동기는 자치부녀회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혹시 밖에 나가게 될 때 아이들을 맘놓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밥이 부족할 때 그릇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집이 있으며, 차를 마시고 싶을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
다.” (Y씨, 면접자료 3)

Y 생협 이사장이면서 초기 자치부녀회 활동을 주도했던 K씨는,

“5단지가 아이들에게는 나서 자란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사
람 냄새나는 좋은 이웃들과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들을 함께 하고,
또 함께 살고 있다고 느끼고, 이렇게 좋은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에 있고, 또 어디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생각
한다.”(K씨, 면접자료 1)

자치부녀회 임원인 P씨는,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이웃 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마음도 써줄 때 정말 좋은 곳에 산다고 느낀다. ” (P씨, 면접자료
3)

현재 자치부녀회 회장인 A씨는,

“살다보니 동네에 정이 많이 들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들
이 있기 때문에 고향과 같이 느낀다.” (A씨, 면접자료 3)

반면에 자치부녀회 활동에 참가한지 1~2년 된 분들은 커뮤니티 활
동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말한다.

“음식 나누어 먹을 이웃이 있고, 이웃의 소식을 듣고, 전할 때, 고향 같은 기분을 느낀다.”(K-2씨, 면접자료 3)

“자치부녀회 활동을 통해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친숙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느낌이 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이웃이 가깝게 느껴진다.” (J씨, 면접자료 3)

“푸른 산과 꽃이 많은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고향이라는 포근한 느낌이 들고, 갑자기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 가깝게 느껴진다.” (J-2씨, 면접자료 3)

이와 같이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의 참가자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공통의 유대와 정주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때 공통의 유대는 가까운 이웃이 옆에 있다는 느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 생활에서 그러한 일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정서적 연계이다. 또한 이러한 공통의 유대라는 토대 위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표출되는 정주의식이 함께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에서는 ‘환경보전’이라는 생태가치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에 있어서 촉매제가 된 것이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안들이었다. 1998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는 도덕산 터널공사를 반대하기 위한 활동의 전개과정에서 구성되었다. 또한 2002년 단지 앞 도로의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자치부녀회 ‘두레’가 중심이 되어 강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

며, 이 운동을 주도하였던 지도력들이 제9차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2003년 3월에 또 다시 광명시에서 도덕산 정상에 팔각정 신축공사를 진행하자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이유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하안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담은 공문을 광명시에 발송하였으며,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반대 캠페인과 항의시위 등에 자치부녀회 ‘두레’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⁴⁾

이와 같이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의 국면과 과정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생태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러한 가치의 공유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광명Y 생활협동운동 이사장이면서 자치부녀회 ‘두레’ 구성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K씨는 이렇게 말한다.

“5단지는 도덕산을 끼고 있어서 저녁에는 개구리 소리, 새벽에는 새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는 자연적으로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인지 5단지에는 다른 단지에 비해 노인들이 많이 살고, 오래 거주한 분들이 많은 편이다.”“2000년 자치부녀회 ‘두레’에서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은지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것이 ‘시냇물이 흐르는 5단지’ 였다. 도덕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5단지 안의 약수터를 잘 이용하여 시냇물을 만들면

4) 도덕산 정상에 팔각정을 건축하는 광명시의 계획은 지역시민단체와 5단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이며 이후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된 상태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동네가 될 것 같고, 자치부녀회에서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K씨, 면접자료 1.)

물론 2002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⁵⁾에서 나타나듯이 ‘환경보전’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도로보다는 인도 중심이라든지, 주차공간을 줄인다든지 등 개인적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단지 주민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형성될 수 있다. 자치부녀회 ‘두레’에서 2001년 사업계획으로 한 달에 하루라도, 한 동씩 돌아가며 주차공간을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5단지의 커뮤니티 활동을 검토할 때 커뮤니티 활동의 주체들 사이에는 ‘생태’ 가치에 대한 상당한 공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5단지 주민 61%인 1,324세대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도로확장 찬성 59%(782세대), 도로확장 반대 34%(453세대).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해체의 위기 속에서 과거의 촌락공동체와는 구별되는 현대적 특성을 갖는 커뮤니티의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서울의 위성도시인 경기도 광명시의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의 커뮤니티 활동사례를 연구하였다.

서울의 위성도시인 경기도 광명시는 주변도시, 젊은 도시, 유동성이 높은 도시, 서민도시인 동시에 소득, 학력, 직업이 유사한 젊은 인구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또한 아파트는 수천 세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공동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자치부녀회등 다양한 주민조직이 활동하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기본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걸맞는 커뮤니티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커뮤니티 활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연구·교육·훈련을 통한 사회운동이라는 주민자치의 개념적 토대 위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관계 참여, 지역사회 활동참여 등 지역사회 참여요인이 커뮤니티 의식을 설명 및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하안 5단지의 경우 1997년부터 진행된 도로 확장공사와 도덕

산 터널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아파트 커뮤니티 운동의 기초를 형성하였고, 1999년 자치부녀회 ‘두레’의 구성으로 본격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전개되었다. 즉, 주민운동을 거치면서 지도력의 개발과 주민들의 응집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의식적으로 지향하는 주민자치조직인 자치부녀회 ‘두레’의 구성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촉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반영되어 행정과는 일정하게 긴장관계에서 진행되는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고유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둘째, 하안 5단지 커뮤니티 활동 참가자들에게는 넓은 세상 도서관 활동, 좋은 이웃과의 만남에 대한 요구, 자원봉사활동 등 활동지향형(activity-oriented) 동기와 함께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 등 동네의 문제해결 추구하는 목적지향형(goal-oriented) 동기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이러한 동기는 개인적으로 형성된 경우도 있지만 또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자극된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하안 5단지에서는 주부교육, 넓은 세상 도서관, 마을축제, 5단지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 참가자들은 자치부녀회를 통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환원되고 있고, 다른 아파트에서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하안 5단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데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넓은 세상 도서관’의 경우 신간서적 3,245권(2002년 말 기준)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 달에 약 2,500권이 대여되고 있다. 또 주부강좌의 수강생만이 아니라 강사를 단지 내 주민들로 구성하고 있었다. 보편적인 커뮤니티 활동에서 교육, 문화축제 등은 항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교육, 문화활동 등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이에 비해 하안 5단지에서

는 ‘넓은 세상 도서관’이 일상적인 커뮤니티 활동의 공간이자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

넷째, 하안 5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치부녀회 ‘두레’의 회원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부녀회 ‘두레’ 사이에, 도로확장 공사라는 지역의 이슈를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간에 형성되고 있다.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신뢰형성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커뮤니티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커뮤니티 내부 집단간에 갈등에는 커뮤니티가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여 갈등이 강화될 때는 커뮤니티가 약화되고, 그 갈등이 극복된 시점에는 커뮤니티가 강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단, 커뮤니티 외부 집단과의 갈등은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섯째, 커뮤니티 활동의 참가자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정주의식과 공통의 유대가 상당히 긴밀히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 활동의 참가자들은 주위에 많은 이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웃으로부터 도움받은 경험,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을 이웃과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도덕산 개발, 도로확장공사 등 환경보전과 관련된 이슈와 활동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환경보전’이라는 생태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에도 불구하고, 하안 5단지 사례는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하부조직과는 일정한 거리와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커뮤니티 활동 사례에서 보여지듯 관과 민이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官民共創’의 커뮤니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한 시대적 과제로 되고 있으며, 보다 발전적인 커뮤니티 형성 실험은 주민, 행정, 기업이 트라이앵글을 형성할 때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단 행 본>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대우학술총서, 2001.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1984.

신용일 외, 『심리학 개론』, 서울: 동문사, 1997.

신용하 외, 『공동체의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이종수, 『지방정부이론』, 서울: 박영사, 2002.

조창현,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1991.

<연구논문>

강형기, “지역공동체의 복귀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자치행정』, 2001. 4.

권순복, “도시공동사회의 형성과 발전방향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권순복,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접근방안(II)”, 『자치행정』, 2001. 6.

권순복, “世田谷區의 마을만들기 센타구상”, 『자치행정』, 2002. 6.

-----,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단위로 소규모 자치 시스템 구성을 연구”, 『자치행정』, 2002. 8.

김경준,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김일태, “21세기 시민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역할”, 제13회 대도시 행정세미나, 1999.

- 김종재, “도시민의 정주·커뮤니티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3.
- 김종해, “도시지역 지역사회행동의 주민참여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 김찬호, “후기 산업 사회의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일본 토요나카시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8.
- ,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의미: 일본의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한국YMCA 마을만들기 워크북, 1999.
- 김학균·김정곤, “집합주거 단지내의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주거학회지』, 2001. 5.
-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 문병기, “거버넌스의 뜻: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자치행정』, 2002. 1.
- 민지선, “지역주민운동을 통한 아파트공동체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수원시 구운동 삼환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박광재, “아파트와 단지내 시설물 안전”, 한국YMCA 마을만들기 보고서, 2000.
- 박경구,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 박철수, “아파트 주거환경,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여성전축가협회 워크숍 자료집, 1999.
- 오창균, “주민자치센타 모델개발의 골격”, 『자치행정』, 2002. 10.

- 우 룡, “아파트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주민관계 분석”, 대
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 유상오,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재개발과 커뮤니티 형성”, 한국YMCA전
국연맹 마을만들기 보고서, 1999.
- 장세훈, “커뮤니티 개발과 주민참여”, 『국토』, 2000. 3.
- 정 석,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 정재희, “도시주거단지의 주민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조문부,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 이론”, 『자치행정』, 2001. 4.
- , “주민자치와 커뮤니티”, 『자치행정』, 2001. 8.
- 한국여성개발원, “생활공동체운동에 관한 연구: 주부의 생협운동을 중심
으로”, 1992.
- 한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서산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연구”, 1982.
- 황한식, “대도시 정주권 주민생활공동체의 발전전략”, YMCA시민운동지
도자 교육 자료집, 1999.
- 대한주택공사, “아파트주거환경조사”, 『주택정보』, 1997. 1.

<해외문헌 >

- Hillery, Gerge A. Jr.,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995. 6.
- McMillan, D. W., & Chavis, D. M., "Sense of community: A theory
and defini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986.
- Peter L. Berger, "To Empower People: From State to Civil Society",
The AEI Press, 1996.
- 宮崎辰雄, “Community 行政の 課題と 展望”, 1950.

A Case Study on Community Building

Kim, Kee-Hyun

Major in Local Governments and Urba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Section 1. Purpose of the Study

Section 2. Scope and Methods of the Study

Chapter 2. Theories on Community and Analytic Framework

Section 1. The Self-rule by the People and Community

Section 2. The Concept of Community

Section 3. The Need for Community in Modern Society

Section 4. The Analytic Framework of Study

Chapter 3. The Case Study in Community Building in Japan

Section 1. The Background of Community Building in Japan

Section 2. The Machijukuri(Build up Village) for Community Building

Section 3. The Center for Community Building in Setagaya Borough

Section 4. Suggestion of the Machijukuri(Build up Village)

Chapter 4. A Case Study on Community Building in Jugong Apartments 5 Area, Gwangmyeong-City, Gyeonggi-Do

Section 1. The Background of Community Building

1. The General View of Local Society
2. The General View of Community Building

Section 2. The Analysis of Community Building

1. The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
2. The Organizations of Community Building
3. The Motive of Participants
4. The Analysis of Community Activities

Section 3. The Social Interaction in Community

Section 4. Sense of Community

Chapter 5. Conclusion

References